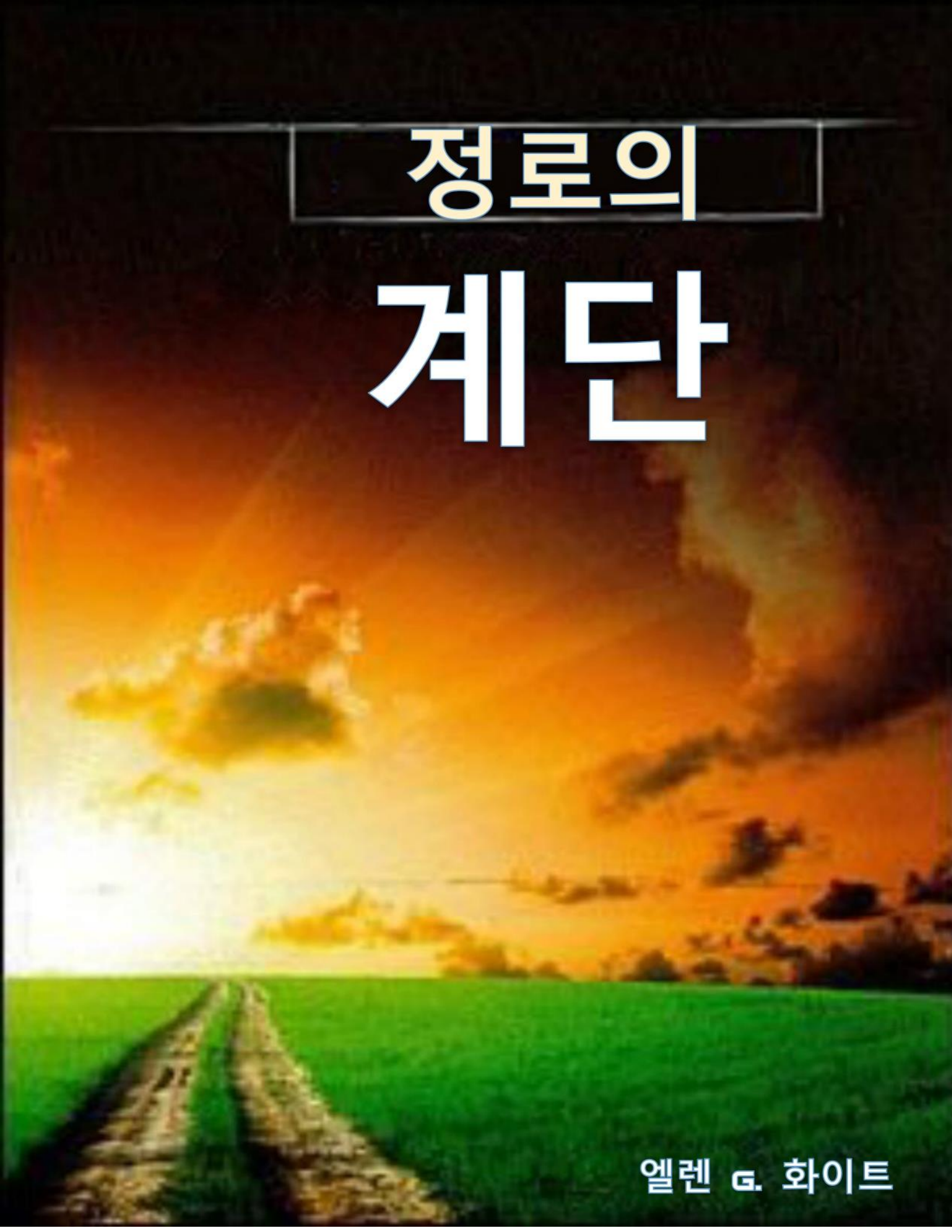

정로의
계단
엘렌 G. 화이트

New Covenant Publications International Ltd. Korean

저작권 © 2020. 새 언약의 국제 출판물.

모든 권리 보유. 이 책의 어떠한 부분도 해당 저작권법이나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허용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 기계, 복사, 녹음 또는 기타 형식 또는 수단으로.

본 책의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새 언약의 국제 출판물]가 보유합니다. 복사, 녹음, 정보 저장, 검색 시스템을 포함한. 전자적 또는 기계적 수단을 막론하고 어떤 형태로든 편집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본 책의의 어떤 부분도 복제 또는 전재될 수 없습니다.

출판 데이터의 카탈로그

편집 및 디자인: 뉴 언약 국제 간행물

영국에서 인쇄.

최초 인쇄 2020 년 5 월 26 일

게시됨: 뉴 언약 국제 간행물

New Covenant Publications International Ltd.,
Kemp House, 160 City Road, London, EC1V 2NX

웹 사이트 방문 : www.newcovenant.co.uk

예수께서는 세리들의 식탁에 귀빈으로 앉아 당신의 동정심과 사교적인 친절한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분의 신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갈급한 심령에 그분의 말씀은 축복과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임하였다. 새로운 충동이 일깨워지고 새 생애에 대한 가능성이 사회의 버림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열려졌다.

예수께서는 거짓 교훈의 능력이 진리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욕망을 파괴시킨다고 지적하셨다. 예수께서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부조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주셨던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빛났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귀중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았다. 낡은 유전, 습관 및 행동을 비우기 전에는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죽은 형식에 집착하였고 산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는 돌아섰다.

New Covenant Publications

International Ltd.

개혁 된 책,변형 된 마음

New Covenant Publications International Ltd.,
Kemp House, 160 City Road, London, EC1V 2NX

Email: newcovenantpublicationsintl@gmail.com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두었습니다.

헌정의 글

하나님께 바쳐진

서문

새 언약 출판물 국제 하늘과 땅을 바인딩 신성한 계획과 사랑의 법의 영속을 강화와 독자를 다시 연결합니다. 언약의 방주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백성과 하나님의 법의 중심 사이의 친밀감을 나타냅니다. [...]사실,새 언약은 구속에 증명,줄어들지 않은 투쟁에 의해 탄생과 혈액에 의해 밀봉.

수많은 세기 동안,많은 견디고 마모에 고통하고 이해할 수 없는 탄압의 계산을 없애는 진리입니다. 특히 암흑 시대에,빛이 있었다 크게는 궁지에 몰린과에 의해 가려는 인간의 전통과 인기있는 무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세계는 지혜를 멸시하고 배반하의 언약입니다. 대재앙의와 타협을 방지할 자극 악 이러한 재앙의 무한 퇴화 및 악마 같은 비인간적에는 많은 생명을 희생을 부당하게 거부,항복하심이 있으. 그럼에도 불구하고,잃어버린 지식은 특히 개혁의 시간 동안,부활했다.

16 세기의 개혁 시대는 반 개혁에 반영 된 진리,근본적인 변화 및 결과적 난류의 순간을 촉발 시켰습니다. 그러나,이를 통해 볼륨,하나의 재발견 명백한 의미의 이 유일한 혁명의 관점에서 본 개혁자 및 다른 용감한 개척자. 자신의 계정에서,하나는 황폐 한 전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놀라운 저항과 초자연적 인 개입의 기본 이유.

우리의 모토:"개혁 된 책,변형 된 마음"은 중요한 시대와 그 영향으로 구성된 문학의 독특한 장르를 강조합니다. 또한 개인 개혁,부활과 변화의 긴급 공감. 으로 구텐베르크 인쇄기와 결합에 의해 기관의 번역,전파의 원리,개혁 신앙을 약 500 년 전,디지털 압박과 온라인 미디어 통신 것이라 모든 언어로 진리의 빛에서 이러한 마지막 시간.

목차

1장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4
2장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함 10
3장 회개 15
4장 자복 26
5장 헌신 30
6장 믿음과 받으심 35
7장 제자 되는 증거 41
8장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자라남 48
9장 사업과 생애 55
10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 61
11장 기도의 특권 67
12장 의혹을 어찌할까 77
13장 주 안에서 기뻐함 84

1장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천연계와 계시(啓示-성경을 의미함)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근원이시다. 천연계의 기이하고 미묘한 것들을 보라. 그리고 그것들이 인류뿐 아니라 모든 생물의 필요와 행복에 얼마나 적당한가를 생각하여 보라. 온 땅을 비추는 일광과 적시는 우로(雨露), 산과 바다와 들, 이 모든 것은 조물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과연 모든 피조물의 날마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시인의 글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다. SC 10.1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시 145:15, 16. SC 10.2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매우 거룩하고 행복스럽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땅이 조물주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당초에는 쇠퇴의 증상(症狀)이나 저주의 음영(陰影)이 도무지 없었다. 그렇던 것이 비애와 사망이 이 세상에 이르게 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사랑의 율법-을 범한 까닭이다. 그러나 비록 죄의 결과로 생기는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 있다.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땅은 너(사람)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창 3:17)다고 하였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사람의 생애를 괴롭게 하고 근심케 하는 고난과 시련-도 죄가 빚어낸 영락(零落)과 퇴폐(頹廢)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필요한 훈련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 세상이 비록 타락하기는 하였으나 모두가 슬픔과 비애 뿐은 아니다. 천연 그 자체 가운데서 희망과 위안의 기별을 찾을 수 있다. 엉겅퀴에도 꽃이 피고 가시덩굴에도 장미꽃이 덮인다. SC 10.3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싯방싯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싹마다 기록되었다.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충만케 하는 아름다운 새들, 향기를 풍기는 연연하고 고운 꽃들, 잎이 청청하게 무성한 수풀의 교목(喬木)들,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 있고 자부적(慈父的)인 권고(眷顧)와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SC 10.4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을 반포하셨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출 33:18) 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출 33:19)리라고 하셨다. 이 선한 형상은 곧 주의 영광이다. 주께서 모세의 앞을 지나시며 반포하시기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출 34:6, 7) 하셨다. 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욘 4:2), 이는 그가 "인애를 기뻐하심"(미 7:18)이다. SC 11.1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과 땅에 있는 무수한 증거로써 당신에게 붙들어 매셨다. 천연계의 사물을 통하여 또는 사람이 그 마음으로 체험해 알 수 있는 그윽하고 부드러운 인간적 결연(結緣)을 통하여 그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그의 사랑을 나타내기에는 충분치 못하였다. 이러한 모든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善)의 대적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포심으로 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이라 여기게 되었다. 사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주요 특성이 엄혹하게 처단하시는 자-엄격한 법관이나 각박하고 인색한 고리 대금업자-와 같이 생각하게 한다. 또한 사단은 조물주는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찾아내 저들에게 벌을 주려고 질투하는 눈으로 항상 주목하는 분인 것처럼 보여준다. 예수께서 인류 가운데 사시려고 오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심으로 이렇게 몽매한 오해를 없애기 위함이었다. SC 11.2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함이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요 1:18).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마 11:27).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요 14:8) 하고 요청하였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 14:9) 하셨다. SC 11.3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실 당신의 사명을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려 하심이라"(눅 4:18)고 하였나니 이것이 그의 사업이었다. 그는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사단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 주셨다. 병자의 신음 소리가 아무 집에서도 들리지 않는 촌락들도 있었나니 이는 예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까닭이었다. 그의 사업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증거가 되었다. 사랑, 자비, 긍휼은 그의 생애의 온갖 행동에 나타났나니 그의 마음은 인류에게 부드러운 동정을 나타냈다. 그는 사람의 소원을 풀어 주시기 위하여 인성을 쓰셨다. 아무리 가련하고 비천한 자라도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비록 작은 아이들이라도 그를 잘 따랐다. 저들은 그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서 인자하시고 사려(思慮)깊은 그 얼굴을 쳐다보기를 좋아했다. SC 11.4

예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라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에 크신 지혜를 가지고 주의 깊고 친절한 태도로 하셨다. 무례하지 아니하시고 가혹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을 쓸데없이 상심케 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사람들의 약점을 비난하지도 아니하셨다. 그는 진리를 말씀하시되 항상 사랑으로 하셨다. 그는 외식과 불신과 불의를 단연히 견책하셨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심한 견책을 하실 때마다 그의 말씀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나니 이 성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를 거절하였다. 저들은 구주이신 그를 배척하였지만 그는 저들을 불쌍하게 여기셨다. 그의 생애는 극기적이고 남을 생각하여 돌보시는 생애였다. 각 영혼은 그가 보시기에는 귀여웠다. 그는 몸을 언제나 위엄 있게 가지셨으나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각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셨다. 그는 모든 사람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사명의 대상자임을 아셨다. SC 12.1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그의 품성은 이러하였나니 이것이 곧 하나님의 품성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신령한 긍휼의 흐름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내려 인류에게 미친 것이다. 자애로우시고 긍휼하신 구주 예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난"(딤전 3:16) 하나님이시다. SC 12.2

예수께서 세상에서 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간고를 많이 겪은 자"가 되셨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무한히 영광스러운 세계로부터 죄로 인하여 손상되고 쇠퇴되고 사망과 저주의 음영(陰影)으로 어두워진 세계로 내려오심을 용납하셨다. 그는 당신의 아들이 사랑의 품과 천사의 존숭(尊崇)을 떠나서 수치와 능욕과 압제와 증오와 사망을 당하는 일을 허락하셨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 53:5). 보라! 광야의 예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십자가상의 예수를!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짐을 몸소 지셨다. 하나님과 일체이신 그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두려운 간격을 그의 마음 가운데 절실히 느끼셨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 하는 고민의 부르짖음을 그의 입술에서 나오게 한 것이다. 죄의 무거운 짐, 죄의 무서운 흉악성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됨을 느끼는 그것이 하나님 아들의 심장을 터지게 하였다. SC 13.1

그러나 이 큰 희생을 한 것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일으켰거나 또는 아버지로 하여금 구원하시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 것이 아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요 3:16)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러한 큰 속죄를 인함이 아니니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이러한 속죄를 준비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사랑을 타락한 세상에 부어 주시는 일에 매개자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후 5:19)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겟세마네의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자께서 우리의 구속의 값을 치르셨다. SC 13.2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요 10:17)고 하셨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하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심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생명을 버린 나를 더욱 사랑하신다. 내가 내 생명을 드려 너희의 빚[負債]과 죄를 담당하여 너희의 대리자와 보증인이 됨으로 나는 아버지께 귀여움을 받나니 이는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가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할 수 있음이다." SC 14.1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아무도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킬 수 없나니 이는 아버지의 품에 있는 자만이 능히 아버지를 나타낼 수 있음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아는 자라야 그것을 드러낼 수 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무한한 희생이 아니고는 잃어버린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것이 없는 것이다. SC 14.2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신 것은 다만 인류 가운데 사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의 희생제물을 죽게 하신 것만이 아니다. 그는 그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아주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에 이익이 되는 것과 필요한 것들을 당신의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일체이셨던 그는 도무지 끊을 수 없는 줄로 그 자신을 인류에 붙들어 매셨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히 2:11)신다. 그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인성을 쓰신 우리의 희생 제물이시요 우리의 중보자시요 우리의 맏형님 이시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당신의 구속하신 인류와 일체가 되신 인자이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인류를 멸망과 죄의 타락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시켜 거룩한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SC 15.1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갚으신 대가 곧 그 아들을 주사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하늘 아버지의 희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의 고상한 관념을 우리로 가지게 하는 것이다. 성신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은 멸망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보았을 때에 찬탄과 존경의 마음이 충만하여 이 사랑의 위대함과 그윽함을 표현할 적당한 언사를 찾지 못하여 세상을 향하여 "보라"고 부르짖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요일 3:1). 이것은 사람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심인가! 범죄로 말미암아서는 인류가 사단의 백성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심으로 인생을 고상하게 하셨다. 타락한 인류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연합함으로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을 얻기에 합당한 처지에 놓였다. SC 15.2

이러한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하늘나라 왕의 자녀! 귀한 허락! 이는 가장 깊이 명상할 제목이다.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십자가에 비추어서 연구할수록 그의 자비와 온유와 공평과 의로 섞인 사유(赦宥)를 깨닫게 되는 것이요 또한 그의 무한하신 사랑의 무수한 증거와 자기의 불순종하는 자녀에 대한 자모의 애정보다도 뛰어난, 인정 깊은 자애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SC 15.3

2장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함

사람은 본래 고상한 능력과 공정한 마음을 품부(稟賦)했다. 그의 본성은 완전했고 하나님과 융화했다. 그의 사상은 순결했고 그의 목적은 신성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이 악용되어 사랑의 자리는 이기심으로 점령한 바 되었다. 그의 천성은 범죄로 말미암아 너무 약해졌으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을 저항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람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으니 만약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영원히 그대로 사로잡힌 자였을 것이다. 인류 창조의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고 이 세상을 재화(災禍)와 황폐로 충만케 하려는 것이 유혹자 곧 사단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재화가 하나님의 인류를 창조하신 사업의 결과로 된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SC 17.1

사람이 죄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골 2:3) 있는 자와 즐거이 교통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는 신성한 것을 즐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어 했다. 지금도 중생하지 아니한 자의 마음은 역시 그러하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융화하지 못하매 따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고 거룩한 자들과 같이 사귀기를 꺼릴 것이며 비록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는 거기서 아무런 기쁨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기심 없는 사랑이 지배하는 거기에서, 각자의 마음이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통하는 거기에서, 죄인의 심금(心琴)에는 아무런 공명(共鳴)도 없을 것이다.

죄인의 사상과 취미와 동기도 거기 사는 무죄한 자들을 고무(鼓舞)시키는 사랑과 취미와 동기와는 배치(背馳)될 것이다. 그는 하늘의 "멜로디"에는 거친 음조가 될 것이다. 그에게는 천국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다. 그는 하늘의 빛이 되시고 하늘 기쁨의 중심인 자를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즉 악인이 하늘에서 제외(除外)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제적 명령으로가 아니다. 저희 자신이 하늘의 교제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에게는 오히려 소멸시키는 불이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를 구속(救贖)하기 위하여 죽으신 자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을 자취할 것이다. SC 17.2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이 힘으로 빠져 나올 수는 없다. 우리의 마음은 악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없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욥 14:4).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롬 8:7).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意志力)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分限)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 낼 수는 있을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動機)를 깨끗케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해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데로 이끌 수 있다. SC 18.1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3:3) 즉 사람이 새 마음과 욕망과 새 목적과 새 동기를 받아 그것으로 하여금 새 생애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요 3:3)다고 하셨다.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잠재(潛在)하고 있는 선을 계발시키기만 하면 족하다는 관념은 치명적(致命的) 오해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고전 2:14).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요 3:7). 또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 1:4).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고 하였다. SC 18.2

하나님이 자애를 깨닫고 그의 품성의 인자하심과 자부적(慈父的) 온정을 깨달아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하나님의 율법의 지혜로움과 공의로움을 깨닫고 그 율법이 사랑의 영원한 원칙 위에 세워진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넉넉지 않다. 사도 바울도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부르짖기를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롬 7:16).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롬 7:12)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첨가하여 심령의 고민과 절망 중에 말하기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롬 7:14)라고 하였다. 그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순결과 의로 갈망하여 부르짖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고 하였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죄의 짐에 눌린 자들의 마음에서 발하는 부르짖음이다. 이런 모든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은 다만 하나뿐이니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요 1:29) 함이다. SC 19.1

죄의 짐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설명하여 명백히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 가지 표상을 사용하셨다. 야곱이 에서를 속이는 죄를 범한 후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도망할 때에 그는 죄 지은 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눌렸다. 그는 자기의 생애를 행복하게 하던 모든 것을 떠나 외로운 방랑자(放浪者)가 되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의 심령을 누른 한 가지 생각은 자기 죄가 자기를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게 했다는 공포심이었다. 그는 슬픈 중에 자려고 맨땅 위에 누우니 사면은 쓸쓸한 언덕뿐이요 위에는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이었다. 그가 잠이 들었을 때에 문득 이상한 빛이 나타나 보였는데 본즉 그가 누운 땅에서부터 하늘 문까지 닿은 듯한 매우 큰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 위로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였다. 그때에 위의 광명한 데서부터 위안과 희망의 기별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리하여 야곱은 그의 심령의 요구와 갈망을 채워 주시는 자-구주-를 알게 되었다. 그는 기쁨과 감사한 중에서 죄인이었던 자기가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꿈에 나타난 신비한 사다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교통의 중재자이신 예수를 표상하는 것이었다. SC 19.2

이 표상이 곧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로 더불어 하신 담화(談話) 가운데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요 1:51)고 말씀하신 그 동일한 표상이다. 사람은 배반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였고 이 세상은 하늘과 분리되었다. 그 두 사이에 있는 구렁텅이를 건너서 서로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다시 하늘과 연결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공로로 죄가 만들어 놓은 구렁텅이에 다리를 놓으심으로 부림을 받은 천사들과 사람이 교통할 수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속절없는 타락한 인류를 무한한 능력의 근원이신 자와 연결하셨다. SC 20.1

그러나 만일 사람이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소망과 도움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는 자를 무시하면 인류 진보의 이상(理想)이나 인류 향상을 위한 모든 노력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약 1:17)온다. 그를 떠나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품성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하셨다. SC 21.1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이 세상의 당신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는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온 하늘을 선물로 주셨다. 구주의 생애와 사망과 중보, 천사들의 봉사, 성신의 탄원, 만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늘 아버지, 하늘 주민들의 끊임없는 흥미, 이 모든 것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동원(動員)되었다. SC 21.2

아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그 놀라운 희생을 묵상하여 보자! 온 하늘이 잃어버린 자를 도로 찾아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소비하고 있는 노력과 정력의 진가(眞價)를 생각하여 보자. 이보다 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이보다 더 강력한 동력(動力)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옳은 행위에 대한 과분한 상급,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천사들과의 교제,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의 교통하며 사랑하는 것, 영원한 시대를 통한 우리의 모든 기능의 향상과 발달, 이 모든 것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창조자와 구속주에게 충심으로 사랑의 봉사를 하게 하는 큰 자극과 장려가 되지 않을 것인가? SC 21.3

그리고 이러한 반면에 죄에 대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형벌, 회피할 수 없는 보응, 우리 품성의 타락, 최후의 멸망들은 사단을 섬기지 말라고 경계하는 경고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다. SC 21.4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무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이상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을 것인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자와의 관계를

바로잡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서 부리심을 받는 천사들과 사귀며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융화되어 교통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여 두신 방법을 잘 이용하자. SC 22.1

3장 회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옳은 자가 될 수 있을까?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함에 조화(調和)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것인가? 많은 사람은 오순절에 허다한 무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꼬"(행 2:37) 하고 질문한 것과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의 첫마디는 "회개하라"(행 2:38)는 것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말하기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없이 함을 받으라"(행 3:19)고 하였다. SC 23.1

회개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죄를 버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생애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SC 23.2

회개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많은 사람은 저희의 악행이 저희 자신에게 고통을 미치게 할까 두려워 저희가 범죄한 것을 후회하고 혹은 외모적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상 의미로 회개가 아니다. 저들은 죄 자체보다도 그 고통을 슬퍼함이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영구히 잃어버린 것을 알았을 때에 슬퍼한 것이 그런 것이다. 발람은 칼을 빼들고 자기의 가는 길에 선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자기 생명을 잃을까 염려하여 자기 죄를 자백하였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고 목적을 바꾸지도 않았고 악을 미워하지도 않았다. 가룟 유다도 자기의 주를 판 후에 부르짖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마 27:4)고 하였다. SC 23.3

이 고백은 정죄에 대한 무서운 생각과 심판에 대한 두려운 공포 때문에 그의 범죄한 심령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다. 그에게 임할 결과가 그에게 공포심을 주었다. 그러나 그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팔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배반한 사실에 대하여 충심으로 마음을 찢는 애통을 느끼지는 않았다. 바로가 하나님의 형벌로 재앙을 당할 때에 형벌을 더 받지 않기 위하여 자기 죄를 자복하였으나 그 재앙이 그치자마자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이것들은 다 죄의 결과를 두려워한 것뿐이요 죄 그 자체를 슬퍼한 것이 아니다. SC 24.1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신의 감화에 순복할 때에는 양심이 각성되어 죄인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신성한 율법의 깊은 뜻과 신성성을 얼마만큼 깨닫게 될 것이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요 1:9) 심령의 구석구석을 비추어 암흑 가운데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죄에 대한 자각은 마음과 뜻을 붙들게 된다. 죄인은 여호와의 의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죄악과 불결함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을 살피는 자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게 된다.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성함의 미(美)와 순결의 기쁨을 깨닫고 자기가 정결케 되어 하늘과 교통할 수 있기를 사모하게 된다. SC 24.2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한 기도는 죄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회개는 참되고 마음 깊은 데서 나온 것이었다. 죄를 변명하려는 노력도 없었고 정하신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도 그 기도의 동기가 아니었다. 다윗은 자기의 범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자기의 심령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를 깨달아 자기 죄를 미워하였다. 그가 기도한 것은 죄사함을 받기 위함만이 아니라 마음의 순결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는 성결의 기쁨-하나님과의 융화와 교통을 회복하는 것-을 갈망하였다. 그의 심경에서 나온 말은 이러하였다. SC 24.3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 32:1, 2. SC 25.1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SC 25.2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시 51:1~14. SC 25.3

이러한 회개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승천하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얻는 것이다. SC 25.4

많은 사람은 바로 이 점에 실패하여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 저들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회개는 저희 죄의 사유를 받게 하는 준비라고 생각한다. 물론 회개가 죄의 사유보다 먼저 있을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구주의 필요성은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만이 느끼는 까닭이다. 그러나 죄인이 예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회개가 죄인과 구주 사이의 한 장애물이 되어야 할 것인가? SC 26.1

성경은 죄인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마 11:28)는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려면 먼저 회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지 아니한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은덕이다. 베드로는 다음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그의 말 가운데서 이상의 말뜻을 밝히 드러냈다. 이스라엘로 회개하게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행 5:31).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죄 사유함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의 양심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는 것이다. SC 26.2

그리스도는 모든 옳은 동기의 근원이 되신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증오심을 넣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진리와 순결에 대한 모든 욕망-우리 죄에 대한 모든 감각-은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의 마음에서 활동하신다는 증거이다. SC 26.3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요 12:32)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위하여 죽으신 구주이심을 죄인에게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갈바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양을 바라볼 때에 구속의 오묘한 이치가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끄신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나타내셨나니 죄인이 이 사랑을 주목할 때에 이 사랑이 심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감명을 주고 심령에 통회하는 생각을 일으킨다. SC 26.4

사람이 혹시 저희가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전에라도 저희의 죄악적 행실을 부끄러워하여 어떤 악습들을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이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진정한 욕망으로 저희 생애를 개선하려고 힘쓸 때마다 저들을 이끄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이다. 저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감화력이 저들의 심령에 작용하여 양심이 각성되고 외부적 생애가 개선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저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쳐다보고 저희 죄 때문에 못 박히신 자를 주목하게 하실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다. 저희 생애의 악함과 저의 심령에 깊이 뿌리박힌 죄가 저희에게 밝히 드러나게 된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의를 얼마만큼 이해하기를 시작하고 부르짖기를 "죄가 무엇이관데 죄를 범한 자를 구속하기에 그처럼 큰 희생이 요구되는가?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사랑, 이 모든 고난, 이 모든 굴욕이 요구되었는가?" 할 것이다. SC 27.1

죄인이 이 사랑을 배척할 수도 있으며 그리스도께로 끌려가기를 거절할 수도 있을 것이나 만일 죄인이 거절만 하지 않으면 그는 예수에게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구원의

경륜에 대한 지식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고난을 당하게 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동시에 십자가 밑으로 이끌리게 할 것이다. SC 27.2

천연계의 사물에 작용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또한 사람의 마음에 속삭여 사람이 가지지 못한 무엇을 찾고자 하는 말할 수 없는 갈망을 생기게 한다. 이 세상 사물은 저희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없다. 하나님의 신은 저희로 하여금 평강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것들 -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결의 기쁨 - 을 찾도록 인도하신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보이는 감화력과 보이지 않는 감화력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하는 죄악적 쾌락에서 저들이 당신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무한한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간단없이 일하신다. 이 세상에 터진 웅덩이에서 마시려고 헛되이 애쓰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기별은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계 22:17)는 것이다. SC 28.1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무엇을 갈망하는 그대들이여, 이 갈망이야말로 그대들의 심령에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라. 그대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며 또한 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완전한 순결을 나타내 보여 주시기를 구하라. 구세주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 원칙-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완전히 실천되었다. 사욕이 없는 사랑과 자선은 그의 심령의 생명이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의 악한 것을 깨닫게 되는 때는 우리가 구주를 쳐다볼 때, 즉 구주께로부터 우리에게 빛이 이를 때이다. SC 28.2

우리는 혹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의 생애는 정직하였고 우리의 도덕적 품성은 바르다고 자만하였을는지 모른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우리는 보통 죄인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겸비할 필요가 없다고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출 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결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생애의 모든 행실을 더럽게 한 우리 동기(動機)의 이기적인 것과 하나님께 대하여 가진 적의(敵意)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깨끗이 씻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화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SC 28.3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그리스도의 순결의 빛은 심령을 꿰뚫어 모든 오점(汚點)을 밝히 드러내고 사람의 품성의 결함과 결점을 폭로한다. 또 이 빛은 신성치 못한 욕망과 심지의 불신실과 입술의 불순결함을 명백히 드러낸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하나님께 불충성한 죄인의 행실이 자신의 눈앞에 드러나게 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신의 감찰하시는 감화를 받아 찔림을 받고 통회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순결하고 흠없는 품성을 볼 때에 자기 자신을 몹시 싫어하게 될 것이다. SC 29.1

선지자 다니엘이 자기에게 보냄을 받은 하늘 사자를 두른 그 영광을 보았을 때에 그는 그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깨닫고 혼도(昏倒)되었다. 그는 그 기이한 광경을 봄으로 받은바 영향을 말하기를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단 10:8)라고 하였다. 이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의 이기심을 미워하고 그 자애(自愛)의 정신을 가증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품성과 일치되는 마음의 순결을 구할 것이다.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의 의로는(외부적 행위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빌 3:6)라고 하였다. SC 29.2

그러나 그가 율법의 신령적 성질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외부적 생애에 적용하는 것처럼 율법의 문자대로만 판단한다면 그는 죄에서 멀었다. 그러나 그가 신성한 율법의 깊은 뜻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볼 때에 그는 스스로 겸비하여져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롬 7:9)라고 하였다. 그가 율법의 신령적 성질을 깨달을 때에 죄는 참으로 흉악하게 보이고 그의 자존심은 사라져 버렸다. SC 29.3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동등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에도 죄의 등급이 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악행이라도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작은 죄가 아니다. 사람의 판단은 불공평하고 불완전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실상 그대로 헤아리신다. 술부대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그 죄가 그를 천국에서 제외(除外)한다는 말을 듣는다. 동시에 교만과 이기심과 탐욕은 오히려 아무 책망도 받지 않고 지나쳐 버려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나 이런 죄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특히 미워하시는 바니 대개 이런 죄가 하나님의 품성의 인자와 반대될 뿐 아니라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분위기가 되는 사욕 없는 사랑과도 반대되는 연고이다. 이보다 더 큰 죄에 빠지는 자는 오히려 자기의 수치와 부족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교만은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교만은 마음문을 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가 가지고 오신 무한한 축복을 받지 않는다. SC 30.1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18:13) 하고 기도한 가련한 세리는 자신을 심히 큰 죄인으로 보았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그렇게 보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필요를 느끼고 그의 죄와 수치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다. 그의 마음 문은 열려서 하나님의 신이 그 은혜로우신 역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를 죄의 권세에게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바리새교인의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기도는 그의 마음이 성신의 감화를 막았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완전함과 비교하여 그 자신이 더러운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는 도움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으매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다. SC 30.2

그대가 자신의 악함을 깨달으면 스스로 개선하기를 지체하지 마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만큼 선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노력으로 선하게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가?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렘 13:23). 우리를 돕는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는 누가 좀 더 힘있게 권고해 주기를 기다리지도 말 것이고 좀 더 좋은 기회나 좀 더 좋은 기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그저 그대로 나아갈 것이다. SC 31.1

그러나 아무든지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크시므로 그의 은혜를 저버린 자라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속지 말라. 죄가 심히 악하다는 사실은 다만 십자가에 비추어서만 헤아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무 선하셔서 죄인을 버리시지 않으신다고 사람들이 주장할 때에 저들이 갈바리를 쳐다보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불순종한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죄인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은 사람을 구원할 별다른 방법이 없는 까닭이요 또한 이 희생이 없이는 인류는 죄의 더럽히는 권세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자들과 교제를 회복하기- 인류가 다시 영적 생애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불가능한 까닭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과 고난과 사망은 다 죄의 무서운 흉악성을 증거하는 동시에 사람이 그 마음을 그리스도께 바치지 않고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더욱 고상한 생애를 살 소망도 없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SC 31.2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라고 하는 자들을 들어서 말하기를 "나도 저들만큼 선하다. 저들의 행실은 나보다 별로 더 극기하고 단정하고 근신하지 못하다. 저들도 나처럼 오락과 방종을 좋아한다."는 말로써 저희 자신을 변명하는 때가 있다. 이와같이 저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저희의 할 의무를 등한히 한 것에 대한 핑계를 삼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아무 사람의 핑계도 될 수 없나니 대개 주께서는 허물이 많은 인간을 우리의 모본으로 주시지 않으셨음이다.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모본으로 주셨으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악한 소행을 비평하는 자들은 더욱 착한 생애와 더욱 고상한 모본을 보여야 할 것이다. 만일 저들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에 대하여 그처럼 고상한 개념을 가졌을 것 같으면 그만큼 저희 죄가 더 크지 아니한가? 이는 저희가 어떤 것이 옳은 줄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치 아니한 연고이다. SC 32.1

지체하는 일을 삼가라. 그대의 죄를 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의 순결을 얻는 일을 지체하지 말라. 여러 천만 사람이 이 점에 실패를 하여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었다. 나는 사람의 생명이 짧고 덧없음에 대하여 여러 말을 않거니와 하나님의 성신의 애소(哀訴)하는 소리에 순종하기를 지체하고 죄의 생애를 살기로 택하는 일은 두려운 위험-우리가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위험-이니 과연 이러한 지체는 사실상 매우 위험한 것이다. 죄는 아무리 작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범하는 때에는 무한한 손실을 받게 될 것을 각오(覺悟)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것은 그것이 우리를 극복하고 우리를 멸망케 할 것이다. SC 32.2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는 과실을 먹는 작은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 같은 무서운 결과가 생길 리는 없으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거룩한 율법을 범한 것이 또 그것이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이 세상에

사망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재난의 방축문(防築門)을 연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 시대를 내려오면서 이 땅에서는 비탄의 부르짖음이 그치지 아니하고 창조된 만물이 인류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하여 함께 탄식하고 괴로움을 받고 있다. 하늘 자체도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 영향을 받았다. 갈바리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를 속하기에 요구되는 놀라운 희생의 기념물로 서 있다. 우리는 죄를 심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자. SC 33.1

죄를 범하는 행동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멸시하고 저버리는 것마다, 그 영향은 그대들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또 그것이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의지를 약하게 하고 지각을 마비시켜 그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신의 간절한 탄원에 응할 생각을 적어지게 할 뿐 아니라 능도 없어지게 하는 것이다. SC 33.2

많은 사람은 저희는 아무 때나 원하는 때에 저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또는 저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을 경솔히 여길지라도 일후에 감화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의 불안한 양심을 진정시키고 있다. 저들은 생각하기를 은혜의 성신을 거스린 이후에라도 또는 저희의 감화를 사단의 편으로 끼친 이후에라도 어떤 최후적 순간에 저희가 걸어오던 방향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다. 일생 동안의 경험과 교육이 이미 그 품성을 완전히 형성하였은즉 그때에 가서 예수의 형상을 받고자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SC 33.3

비록 품성 가운데 한 가지의 못된 성벽이나 한 가지 악한 욕망이라도 고집스럽게 품고 버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복음의 모든 능력을 소멸시켜 버릴 것이다. 죄악적 방종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정신을 강하게 한다. 대담하게 불신의 정신을 나타내는 자, 거룩한 진리에 대하여 전연 무관심하는 자는 그 자신이 심은 바의 수확을 거둘 뿐이다. 온 성경을 통하여 죄인은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니"(잠 5:22)라는 솔로몬의 말보다 악을 심상하게 보는 데 대한 더 두려운 경고는 없는 것이다. SC 34.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러나 그는 우리 의사를 강제하지는 않으시나니 만일 우리의 의사가 죄를 범하기를 고집함으로써 온전히 악에 쏠리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아니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의 은혜를 받을 의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더할 수 있으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고히 배척하므로 자멸하는 것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너희 마음을 강퍅케 하지 말라"(히 3:7, 8). SC 34.2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여호와는 기쁨과 슬픔의 착잡(錯雜)한 감정으로 찬 사람의 마음, 더러운 것과 거짓의 거처가 되는 방황하고 제멋대로 나가는 사람의 마음속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동기와 의사와 목적을 아신다. 그대는 더럽힌 그대로의 심정을 가지고 그에게로 나아가라. 시편 기자와 같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자 앞에 그 마음문을 열어 놓고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시 139:23, 24) 하고 부르짖으라. SC 34.3

많은 사람은 마음은 깨끗이 씻지 아니하고 지적신앙(知的信仰) 곧 형식적 경건만 받아들인다. 그대들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 51:10)라고 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영혼을 진실되게 취급하라. 그대들의 육신적 생명이 위기에 처하여 있는 것처럼 열심히 또는 꾸준히 행하라. 이 일은 하나님과 그대들 개인 사이에 영원히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추상적 소망은 결국 그대를 멸망에 이르게 할 것이다. SC 35.1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거룩함의 큰 원칙을 그대들에게 밝히 보여 주나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 12:14). 이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의 길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 준다. 이 말씀을 그대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유의(留意)하라. SC 35.2

그대들의 죄의 흉악한 것을 볼 때에 또는 그대들이 자신의 진상(眞相)을 볼 때에 실망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화목시킬 것이 아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고후 5:19) 하셨다. 그는 당신의 부드러운 사랑으로 죄에 빠진 당신의 자녀의 마음을 사려고 하신다. 세상의 부모라도 저희의 자녀들의 허물과 잘못에 대하여 참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하려고 하시는 자들에 대하여 참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죄인에게 그보다 더 인정 있게 애원할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의 입술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더 인정 있는 간청이 새어 나온 적이 없다. 그의 모든 허락과 경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표시이다. SC 35.3

사단이 그대에게 와서 너는 큰 죄인이라 하거든 그대는 그대의 구주를 쳐다보고 그의 공로에 대하여 말하라. 그대에게 도움이 될 것은 곧 그의 빛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대의 죄를 자복하라. 그러나 원수에게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딤전 1:15)는 것과 또 그대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하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두 빚진 자에 대하여 질문하셨다. 한 사람은 그 주인에게 적은 금액의 빚을 지고 다른 사람은 매우 많은 금액의 빚을 졌는데 주인이 둘 다 탕감하여 주었다.

그리스도께서 시몬에게 묻기를 어느 사람이 그 주인을 더 사랑할 것이냐 하셨다. 시몬이 대답하기를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눅 7:43) 하였다. 과연 우리는 큰 죄인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유함을 받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의 희생의 공로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드리기에 넉넉하였다. 많이 사유함을 받은 자는 그를 더 많이 사랑할 것이며 그의 크신 사랑과 무한한 희생에 대하여 그의 보좌 곁에 가장 가까이 서서 그를 찬송할 것이다. 우리가 죄의 악한 것을 가장 절실히 깨닫게 되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충분히 이해하는 그때이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리운 줄의 길이를 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무한한 희생을 얼마만큼 깨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움과 통회로 녹아지는 것이다. SC 36.1

4장 자복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잠 28:13). SC 37.1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조건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주께서는 우리가 죄의 사유를 받기 위하여 무슨 괴로운 일 행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은총을 받기 위하여 또는 우리의 죄과를 속하기 위하여 멀고 지리한 순례나 또는 고통스러운 고행(苦行)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SC 37.2

사도는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약 5:16)고 하였다. 그대들의 죄를 사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그대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는 그대들의 잘못을 피차에 자복하라. 만일 그대가 그대의 친구나 이웃에게 허물이 있으면 그대는 그 잘못을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대를 쾌히 사유하여 주는 일은 그가 할 일이다. 그 다음으로 그대는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구할 것이니 이는 그대가 손해를 입힌 그 형제는 하나님의 소유요 그대가 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 그의 창조주와 구속자에게 죄를 범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홀로 참되신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앞에 내어 놓을 것이니,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히 4:15)고, 또한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온갖 불의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 줄 수 있는 자이시다. SC 37.3

자기의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겸비하게 하지 않은 자들은 아직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첫째 조건도 이행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만일 우리가 다시 회개할 것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는 가운데서 심령의 참된 겸비와 통회하는 정신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아직 진정으로 죄의 사유를 구한 것이 아니요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평강을 얻지 못한 자이다. 우리가 과거의 지은 죄의 사유함을 받지 못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겸비하기를 즐기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에 응종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까닭이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교훈이 있다. 죄를 자복하는

일은 공중 앞에서 하거나 사사로이 하거나 충심으로 할 것이요 숨김이 없이 하여야 할 것이다. 죄인에게 자복을 강요할 것이 아니다. 자복은 경솔하게 주의 없이 할 것이 아니니 죄의 가증함을 실감하지 않은 자들에게 자복을 강요할 것이 아니다. 마음속 깊은 데서 솟아나오는 자복은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길을 찾을 것이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시 34:18)라고 하였다. SC 37.4

진정한 자복은 언제든지 명백하게 하고 또한 지은 죄를 꼭 지적하여 자백한다. 죄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자복하여야 할 성질의 죄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해를 입은 당자에게 자복하여야 할 허물도 있다. 또 어떤 죄는 공중에 대한 죄이므로 공중 앞에 자복하여야 할 것이 있다. 그러나 어떤 자복이든지 그대가 범한 죄를 꼭 지적해서 명확하고도 요령 있게 해야 한다. SC 38.1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저들은 죄의 결과로 고통을 받았나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방위하고 옹호하시는 그의 권능에 대한 신임을 잃어버린 까닭이다. 저들은 우주의 크신 통치자를 배반하고 저희의 주위에 있는 나라들처럼 치리받기를 원하였다. 저들은 평안함을 얻기 전에 아래와 같은 솔직한 자복을 하였다.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삼상 12:19) 하고 저들은 가책받은 바로 그 죄를 자복하였다.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것이 저희 심령을 괴롭게 하고 저들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하였다. SC 38.2

진정한 회개와 개선이 없는 자복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바 되지 못한다. 반드시 생애에 확실한 변화가 있어야 하나니 하나님께 거리끼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버려야 한다. 이 일은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결과로 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사 1:16, 17).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녕 살고 죽지 않을지라"(겔 33:15). 사도 바울은 회개하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고후 7:11). SC 39.1

죄가 도덕적 지각을 둔하게 하는 때에 그 악행하는 자는 자기의 품성의 결점을 분별치 못할 뿐 아니라 그가 범한 죄의 흉악함을 깨닫지도 못하나니 악행하는 자가 죄를 깨닫게 하는 성신의 능력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가 아직도 자기 죄에 눈먼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의 자복은 진정하지 못하고 간절한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자기 죄를 자복할 적마다 자기 행위에 대하여 변명하여 말하기를 여사여사한 사정이 없었다면 자기는 비난받는 바 그 일을 아니하였으리라고 한다. SC 40.1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과실을 먹은 후에 그들은 수치와 공포의 느낌으로 가득했었다. 처음에는 그들이 어떻게 저의 죄를 핑계하여서 그 무서운 사망 선고를 면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주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물어 보실 때에 아담의 대답은 그 범죄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일부분은 그 아내에게 돌려 말하기를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2) 하였다. 여인은 그 허물을 뱀에게 돌려 말하기를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3) 하였다. 왜 당신은 뱀을 지으셨나이까? 왜 당신은 그 뱀이 에덴동산에 들어옴을 허락하셨나이까? 하는 질문이 하와가 자기 죄를 변명하는 말 가운데 암시되어 있나니 이리하여 하와는 저희가 범죄한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렸다. 자기 변명의 정신은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에게서부터 시작되어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나타내었다. 이런 종류의 자복은 성신의 감동을 받아 된 것이 아니니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담당하게 하고 그 죄를 속임이나 외식이 없이 자복하게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불쌍한 세리와 같이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자기 죄를 자복하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이니 이는 예수께서 회개하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피로써 하나님께 호소하시는 연고이다. SC 40.2

성경 가운데 있는 진정한 회개와 겸비의 실례는 죄에 대한 핑계나 자기 변화가 섞이지 않은 자복의 정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려고 애쓰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기 죄를 아주 흉악한 그대로 진술하고 자기 죄과를 경감시키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행 26:10, 11)다고 하였다. 그는 또 주저하지 않고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전 1:15)고 하였다. SC 41.1

진정한 회개로 부드러워진 겸손하고 상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갈바리"에서 지불된 대가(代價)를 얼마만큼 이해하게 될 것이니 한 아들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버지께 자복하는 것처럼 참으로 참회(懺悔)하는 자는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것이다. 기록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라고 하였다. SC 41.2

5장 헌신

하나님의 허락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렘 29:13)고 하셨다. SC 43.1

온 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니 만일 그렇게 아니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서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성신은 우리의 형편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진술하였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엡 2:1)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성한 곳이 없"(사 1:5, 6)다. 우리는 사단의 올무에 단단히 붙들어 매인 바 되어 "그 뜻을 좇아 그에게 사로잡힌 자"(옛 번역)(딤후 2:26)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시고 놓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는 전적 변화, 즉 우리 온 성질 갱신이 요구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SC 43.2

자신과 싸우는 싸움은 일찍이 싸운 싸움 중 가장 큰 싸움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며 자신을 바치는 일은 고투(苦鬪)가 요구된다.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결케 되려면 그 심령은 하나님께 순복시켜야 한다. SC 43.3

하나님의 정부는 사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맹목적 굴종이나 무리한 제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이지(理智)와 양심에 호소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함은 조물주께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하신 초청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의 의사를 강제하시지 않으신다. 그는 단 마음과 이성적으로 하지 않는 경배는 받으실 수 없다. 다만 억지로 굴종하는 것은 마음과 품성의 진정한 계발을 방해할 것이요 사람으로 한갖 자동 제어기계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조물주의 뜻이 아니다. 그는 당신의 창조력의 극치(極致)인 사람이 가능한 최고 한도까지 발달하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복을 우리 앞에 놓으셨다. 그는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당신께 바치기를 청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죄의 속박에서 놓이고 못놓이게 되는 것은 우리 선택에 달렸다. SC 43.4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은 일체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33) 하셨다.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려야 한다. 재물의 신(神)은 많은 사람의 우상이다.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탐하는 것은 저들을 사단에게로 붙들어 매는 금사슬이다. 명망과 세속적 명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숭배하는 것이다. 이기적 안락의 생애와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의 우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예적 속박은 끊어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반은 주의 것이 되고 반은 세상 것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SC 44.1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하고 옳은 품성을 닦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있다. 저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감동하지 못하고 다만 저들은 천국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으로서 이행하려고 한다. 이러한 신앙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실 때에 심령은 그의 사랑과 그와 함께 교통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져 그가 그리워져서 따를 것이다. 그를 명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최소한도 얼마를 바쳐야 할지를 묻지 아니하며 또한 가장 낮은 표준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저희의 구속자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기를 바랄 것이다. 저들은 열심으로 모든 것을 바치고 저희가 바라는 목적물의 가치에 상당한 흥미를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깊은 사랑이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하는 것은 한갓 말뿐이요 건조무미한 형식과 힘든 고역(苦役)이다. SC 44.2

그대들은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너무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라.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 - 생명과 사랑과 고난 - 을 주셨다. 그런즉 그처럼 큰 사랑을 받을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가 어찌 우리의 마음을 그에게 바치기를 아낄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생애의 순간마다 우리는 그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온 자이다. 이 까닭을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무지하고 불행한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는지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찔림을 받은 그를 바라보면서도 그의 모든 사랑과 희생을 멸시하는 행동을 즐겨 행할 것인가? 영광의 주께서 받으신 한없는 굴욕을 생각할 때에 분투와 자아 겸비를 함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찌 원망할 것인가? SC 45.1

많은 교만한 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신다는 확실한 보증도 받지 못하고 어찌 내가 참회하고 굴복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한다. 나는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그리스도를 보라. 그는 죄가 없으셨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왕자이셨다. 그러나 그는 인류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바 되셨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사 53:12). SC 45.2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는 그 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곧 죄가 더러워진 마음이니 이것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순결케 하여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 구원하는 바 되기 위하여 그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러하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기를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러한 말을 듣기를 부끄러워하고 기록하기도 부끄러워한다. SC 46.1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가장 유익할 것은 아무것도 버리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당신의 자녀들의 행복을 염두에 두신다. 그리스도를 믿기로 택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저희 자신이 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을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주시려고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생각과 행동을 할 때에 그는 자기 심령에 가장 큰 손상과 억울함을 끼치는 것이다. 무엇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아시고 당신의 피조물의 유익을 위하여 경륜하신 자가 금(禁)하시는 길에서는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없다. 죄악의 길은 불행과 멸망의 길이다. SC 46.2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온 하늘은 인류의 행복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천부께서는 당신의 어떤 피조물에게든지 즐거움의 길을 막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고난과 실망을 가져오고 행복과 하늘의 문을 우리에게서 닫아 버리는 그러한 방종을 피하라는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을 저희의 모든 부족과 불완전함과 연약한 그대로

받으신다. 그리고 그는 저들을 죄에서 깨끗이 씻고 당신의 피로써 구속하실 뿐 아니라 당신의 멍에를 메고 당신의 짐을 지기를 결심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채워 주신다. 생명의 양식을 얻으려고 당신에게로 나오는 모든 자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 그의 뜻이시다. 그는 불순종하는 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행복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러한 의무만을 이행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참된 심령의 즐거운 생애는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형성(形成)하는 그것이다. SC 46.3

많은 사람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것인가?" 하고 묻는다. 그대들은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나 도덕적 힘이 약해서 유혹의 종이 되고 죄악적 생애의 습관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대들의 약속과 결심은 썩은 새끼와 같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생각과 동기와 애정을 억제할 수 없다. 그대들이 약속을 어긴 것과 맹세한 것을 이행치 못해 온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것이 그대 자신의 성실성에 대한 그대들의 신임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받으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그대들은 낙심할 필요는 없다.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지 여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셨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나니 그리하면 그는 그대들 안에서 그대들이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들의 성질은 그리스도의 신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대들의 애정은 그에게 중심을 두게 되고 그대들의 사상은 그와 조화될 것이다. SC 47.1

선과 성결에 대한 욕망은 좋기는 좋으나 만일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에 들어갈 것이다. 저들은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다. 저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SC 48.1

의지를 옳게 사용함으로 그대들의 생애는 전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대들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바침으로 그대들은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과 연결되는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을 굳게 서게 할 힘을 위로부터 얻을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바침으로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을 것이다. SC 48.2

6장 믿음과 받으심

그대들의 양심이 성신으로 각성될 때에, 그대들이 죄의 악함과 죄의 세력과 범죄와 죄의 쓰라림이 무엇임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될 때에는 죄를 매우 미워할 것이다. 그대들은 죄가 그대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 것과 그대들이 죄의 세력에 얽매인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대들이 그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대의 무력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동기는 불순하고 그대들의 마음은 깨끗하지 못하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생애가 사욕과 죄로 차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사유함을 받아 깨끗해지고 죄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할 것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융화하고 그와 같이 변화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SC 49.1

그대들이 요구하는 바는 평안 곧 마음 가운데 하늘이 사유와 안정과 사랑을 얻는 것이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지력으로도 얻을 수 없고 지혜로도 구할 수 없나니 그대 자신의 노력으로는 그것을 도무지 얻기를 바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돈 없이 값없이"(사 55:1) 한 선물로 제공하신다. 만일 그대들이 손을 내밀어 붙잡기만 하면 그것은 그대들의 것이 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사 1:18),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겔 36:26)이라고 하셨다. SC 49.2

그대들이 죄를 자복하고 충심으로 그것을 버린다고 하자. 또 그대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그대의 죄를 씻어 버리시고 그대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라. 그리고 그가 허락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라. 이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가르치신 교훈이니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은 우리가 받은 줄로 믿어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권능을 믿을 때에 저들의 질병을 고쳐 주셨다. 그는 저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일에 도와주셨나니 그렇게 함으로 저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일에서도 그를 신임할 수 있게 즉, 저들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당신의 권능을 믿게 하셨다. 이 사실은 그가 반신불수를 고치실 때에 명백히 진술되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마 9:6). 이와같이 복음 전도자 요한도 그리스도의 이적에 대하여 말하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고 하였다. SC 49.3

예수께서 병을 어떻게 고치셨다는 간단한 성경 기사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배울 수 있다. 우리는 베데스다의 반신불수 이야기를 회상해 보자. 이 불쌍한 병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는 38년간이나 수족을 쓰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명하셨다. 그 병자는 "주여 당신이 만일 나를 낫게 하여 주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니 곧 나은 줄로 인정하고 즉시 힘을 써서 걸으려고 하였으니 걷게 되었다.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그는 그 병이 나았다. SC 50.1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대들도 죄인이다. 스스로는 과거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자기의 마음을 고칠 수도 없고 자신을 성결케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그대들을 위하여 행하시겠다고 허락하셨다. 그대들은 그 허락을 믿고 자복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를 섬기기로 결심하라. 그대들이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당신의 말씀을 이행하실 것이다. 그대들이 허락을 믿으면 - 그대들이 사유함을 받고 깨끗이 씻음을 받은 줄로 믿으면 -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사 그대들도 마치 반신불수가 고침을 받은 줄로 믿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걸을 능력을 주신 것처럼 고침을 받는 것이다. 그대들이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SC 51.1

그대들이 고침을 받은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느끼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SC 51.2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고 하셨다. 이 허락에는 조건이 있나니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깨끗이 씻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복들을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받은 줄로 믿고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예수께로 나아가 깨끗이 씻음을 받고 부끄러움이나 후회가 없이 율법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롬 8:1, 4)는 연고이다. SC 51.3

그 후로는 그대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가...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벧전 1:18, 19). 하나님을 믿는 이 단순한 행동으로 성신께서는 그대들의 마음속에 새 생명을 나게 하신 것이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 한 어린아이로 태어났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대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SC 51.4

이제 그대들이 그대들 자신을 예수께 바쳤은즉 다시 돌아서지도 말고 그에게서 떠나지도 말고 오직 날마다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그에게 바쳤다"고 하라. 그리고 그에게 당신의 신을 주시기를 구하고 또 당신의 은혜로 그대를 보존하여 주시기를 청하라. 그대들이 그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처럼 그대들이 그의 안에서 사는 것도 역시 그와 같은 모양으로 되어야 한다. 사도는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골 2:6)라고 하였다. SC 52.1

어떤 사람들은 저희는 아직 미결(未決) 중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하려면 먼저 저희가 개선되었다는 것을 주께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저들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복을 요구할 수 있다. 저들은 저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신을 받아야 하나니 그렇지 않으면 악을 능히 대적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가 많은 그대로 나아가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아래 엎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에게서 모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 주시는 일은 그의 영광으로 여기신다. SC 52.2

많은 사람은 여기에서 실패하나니 즉, 저들은 예수께서 저희를 직접 또는 개인적으로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 조건대로 응하는 모든 자들이 저희 모든 죄가 관대히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저희의 특권이다. 하나님의 허락은 그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버리라. 그 허락은 모든 회개하는 범죄자를 위한 것이다. 힘과 은혜는 봉사하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분급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되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자라도 저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안에서 힘과 순결과 의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는 저들에게서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의의 흰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는 저들에게 살고 죽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SC 52.3

하나님께서는 유한(有限)한 사람이 피차 대우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접하지 않으신다. 그의 생각은 자비와 사랑과 지극한 긍휼의 생각이시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사 55:7, 44:22)고 하신다. SC 53.1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겔 18:32). 사단은 하나님의 복된 보증을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한줄기의 희망이나 한줄기 빛이라도 없이 하려고 하나 그대들은 이것을 허락지 말아야 한다. 시험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말하기를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나에게는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 내가 비록 그의 사랑을 저버리고 그가 내게 주신 축복을 낭비하였을지라도 나는 일어나 내 아버지께로 가서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군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말하라. 이 비유는 어그러진 길로 나아간 자를 다시 영접하심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눅 15:18~20)었다. SC 53.2

그러나 그처럼 인정 깊고 감동적인 이 비유라도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긍휼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렘 31:3)라고 하셨다. 죄인이 오히려 부친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방에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는 동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심히 사모하였나니 그러므로 죄인의 심령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갈망이 일어나는 것은 그 방랑자를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한 성신의 탄원과 호소에 불과한 것이다. SC 54.1

그대들의 앞에는 성경의 귀한 약속들이 있거늘 어찌 의심을 품을 수 있겠는가? 그 불쌍한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그 죄를 버리려고 원하는데 주께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발 앞에 나오는 자를 엄히 물리치시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생각은 단연 버리라!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더 그대들의 신념을 손상시키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주셨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가 택한 다음의 말씀보다 더 강하고 간곡한 언사가 어디 있으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사 49:15)고 하셨다. SC 54.2

의심하고 떠는 자들이여 쳐다보라. 대개 예수께서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가 그대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성신께서 오늘 그대를 부르신다. 전심으로 예수께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의 축복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SC 54.3

그대들이 하나님의 허락들을 읽을 때에 그것들이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을 표시한 것임을 기억하라.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무궁한 자애(慈愛)로 생각하신다. "우리가...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엡 1:7). 과연 하나님께서 그대를 돕는 자이심을 믿으라. 그는 당신의 도덕적 형상을 사람들에게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대들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는 자비와 용서로 그대들을 가까이 하실 것이다. SC 55.1

7장 제자 되는 증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SC 57.1

사람이 회개한 과정(過程)에 대하여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나 지낸 경로(經路)는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가 회개하지 않은 증거는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요 3:8)라고 하셨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그 영향은 분명히 볼 수도 있고 감촉할 수도 있는 바람과 같이 사람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도 또한 그러한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사람의 마음 안에 새 생명을 나게 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 사람을 만들어 낸다. 비록 성신의 역사는 소리가 없고 느낄 수 없을지라도 그 영향은 현저하게 드러난다. 만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으면 우리 생애가 그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융화시키기 위하여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또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선행만을 가지고 넉넉하다고 믿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생애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는 것을 드러낸다. SC 57.2

변화는 우리 품성과 습관과 우리의 직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와 현재 사이의 차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품성은 일시적 선행이나 일시적 악행으로 드러날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말과 행실의 경향(傾向)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SC 57.3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 없이도 행동이 외부적으로 방정(方正)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덕망을 넓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예모 있는 생애를 할 수도 있게도 하는 것이다. 또는 자존심이 우리로 하여금 누추한 모양을 피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기심을 가진 자도 너그러운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편에 속하였다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SC 58.1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SC 58.2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SC 58.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자는 성신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 5:22, 23)를 맺을 것이다. 저들은 다시는 기왕의 정욕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그의 품성을 반사하고 그의 깨끗하심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전에 미워하던 것은 지금에는 사랑하게 되고 저들이 전에 사랑하던 것은 지금 미워하게 될 것이다. 교만하고 자기주장만 세우던 자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것이다. 허영심이 많고 거만하던 자가 침착해지고 근신하게 될 것이다. 음주하던 자가 절제하고 방탕하던 자가 깨끗한 자가 될 것이다. 세상의 허영적 습관과 유행은 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외모의 단장을 힘쓰지 않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벧전 3:3, 4) 단장할 것이다. SC 58.4

회개가 행위를 개선케 함이 없는 때에는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나타났다고 할 수는 없다. 죄인이 볼모잡은 것을 도로 주고 그 도둑한 물건을 돌려주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과 동포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SC 59.1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은 자로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의 사유하는 은혜를 입는 때에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오른다. 그리고 모든 짐이 가벼워지나니 대개 그리스도께서 메어 주시는 멍에는 쉬운 연고이다. 의무는 즐거움이 되고 희생은 기쁨이 된다. 전에 흑암으로 덮였던 길이 "의로운" 햇빛으로 환해질 것이다. SC 59.2

그리스도 품성의 아름다운 점들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즐거워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의 영광을 들어내려는 열성은 우리 구주의 생애의 주동력(主動力)이 되었다. 사랑은 그의 모든 행동을 아름답게 하고 고상하게 하였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아니한 자는 사랑을 창작할 수도 없고 만들어 낼 수도 없다. 사랑은 오직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일 4:19).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마음에는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된다. 사랑은 품성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지배하고 정욕을 제어하고 증오심을 사라지게 하고 성정(性情)을 고결케 한다. 이 사랑을 사람의 마음에 품으면 그것이 생애를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화(淨化)케 하는 감화를 끼친다. SC 59.3

하나님의 자녀들-특히 새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한 자들-이 각별히 삼가야 할 두 가지 과오가 있다. 그 하나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저희 자신을 하나님과 융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행함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자는 전연 불가능한 일을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은 사욕과 죄로 더러워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오직 우리를 성결케 할 수 있다. SC 59.4

이와 정반대이면서도 그보다 못하지 않게 위험한 과오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그것이다. 즉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요 우리의 행하는 것은 우리의 구속 문제와 하등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SC 60.1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다만 외모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으로 하는 봉사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품성의 표현이요 사랑의 대원칙의 구현(具現)이 되나니 그러므로 이것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당신 정부의 기초가 된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생애에 실천되지 않을 것인가? 사랑의 원칙이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사람이 조물주의 형상대로 새로워지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히 10:16) 하신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이 생애를 형성하지 않을 것인가? 순종-사랑으로 하는 봉사와 충성-은 제자가 되는 참된 증거이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요일 5:3).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요일 2:4)다고 하였다. 믿음은 사람을 순종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믿음 곧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SC 60.2

우리가 순종하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대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요일 3:5, 6). 이것이 참된 증거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감정과 사상과 목적과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것이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요일 3:7)다. 이는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에 표시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표준에 따라 판정되는 것이다. SC 61.1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고 참람(僭濫)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엡 2:8).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 2:17).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당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시 40:8)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요 15:10)한다고 하셨다. 또 성경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요일 2:3, 6),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벧전 2:21)라고 했다. SC 61.2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始祖)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만일에 영생을 이보다 약한 조건으로 허락하여 준다고 하면 온 우주의 행복은 위험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재화와 비참을 일으키는 죄가 영원히 불멸(不滅)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SC 62.1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운 품성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일에 실패하였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타락해서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 없게 되었다. 또 우리는 죄가 많고 거룩하지 못하므로 거룩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응할 만한 자신의 의는 조금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열어 주셨다.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사셨다.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우리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 하신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SC 62.2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그대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대의 마음을 항상 그에게 바침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그는 그대가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마 10:20)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그대는 같은 정신을 나타낼 것이며 또한 같은 행실-의와 순종의 행실-을 행할 것이다. SC 62.3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스스로 높일 까닭이 없다. 우리 희망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에게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에 있고 또한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선행에만 있는 것이다. SC 63.1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할 때에 잊어서는 안 될 구별할 것이 있다. 신앙과는 전연 다른 일종의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참됨은 사단과 그의 부하인 악한 천사들도 마음속으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성경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약 2:19)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의지(意志)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그것이 신앙이다. 신앙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성결하게 만든다.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진다. 거듭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복종할 수도 없었던 마음이 이제는 율법의 거룩한 계명을 즐거워하게 되고 시편 기자와 같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시 119:97) 하고 부르짖게 된다. 그리고 율법의 의가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롬 8:1) 우리에게서 성취될 것이다. SC 63.2

그리스도의 사유하시는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저희의 품성이 불완전하고 저희의 생애가 결함이 많은 것을 느끼므로 저희 마음이 과연 성신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지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이러한 자들에게 나는 말하노니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과실로 인하여 예수의 발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자주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낙담하지 말자. 비록 우리가 원수에게 실패를 당하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거나 싫어하는바 되거나 배척당한 것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요한은 말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1)고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요 16:27)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지 말라. 그는 그대를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순결함과 거룩함이

그대에게서 반사됨을 보시고자 원하신다. 그러므로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기만 하면 그대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확실히 믿으라. 우리 자신의 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구주의 능력을 의지하자. 그리하면 "내 얼굴을 돕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SC 64.1

그대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이 그대의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일 것이니 대개 이는 그대의 시력(視力)이 더욱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에 대조되어 더욱 뚜렷이 나타나 보이게 되는 까닭이다. 이것은 사단의 미혹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신의 생기 있는 감화가 그대를 각성시키고 있는 증거이다. SC 64.2

자기의 죄가 흉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는 예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뿌리박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그의 신성한 품성을 감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도덕적 결점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미점(美點)과 탁월하심을 보지 못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SC 65.1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적다고 보면 볼수록 우리는 우리 구주의 무한하신 순결과 사랑 가운데서 존중할 만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의 죄가 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를 사유하시는 자에게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속절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 때에 그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도움을 요구하는 느낌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게로 이끌게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더욱 고상한 관찰을 하게 될 것이고 그의 형상을 더욱 완전히 반사하게 될 것이다. SC 65.2

8장 그리스도께 이르기까지 자라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음의 변화를 성경에는 새로 나는 것으로 말하였다. 또는 그것을 농부가 뿌린 좋은 종자가 싹이 나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이와같이 회개하고 새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간 자들은 "갓난 아이"(벧전 2:2)와 같이 "점점 자라"(엡 4:15)(구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남녀가 되는 것이다. 마치 밭에 심은 좋은 종자가 자라서 열매를 맺음과 같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사 61:3)고 하였다. 이렇게 천연계의 생물에서 여러 가지 실례를 인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신령적 생명의 신비한 진리를 더욱 깨닫기 쉽게 하였다. SC 67.1

사람의 온갖 지혜와 재주를 다 가지고라도 천연계 가운데 있는 아무리 작은 물체에라도 생명을 만들어서 넣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생명으로만 식물이나 동물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신령적 생명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요 3:3-영어 성경 난외주 참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SC 67.2

생명이 그러한 것처럼 자라남도 또한 그러하다. 꽃봉오리를 피게 하고 꽃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씨가 발육되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막 4:28)을 이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 호세아도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기를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호 14:5, 7)라고 하였다. 또 예수께서도 이르시기를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눅 12:27) 하셨다. 모든 초목과 꽃들은 저희의 염려나 걱정이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위하여 공급하시는 것을 받음으로 자라나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무슨 염려나 자기의 힘으로써 저희의 키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대들도 그대들의 염려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라날 수 없는 것이다. 초목이나 어린 아이는 저희의 주위에 있는 것들에게서 저희의 생명을 위하여 공급되는 것들-공기, 일광, 영양-로 말마암아 자라나는 것이다. 이 천연계의 선물들이

동물과 식물에게 관계되고 있는 그러한 관계가 그리스도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 사이에도 있는 것이다. 그는 저들의 "영원한 빛"(사 60:19)이시요 "해요 방패"(시 84:11)시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호 14:5)고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 같이 임하리니"(시 72:6) 그는 생수이시며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요 6:33) "하나님의 떡이시다. SC 67.3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무한한 선물로 주심으로 온 세상을 은혜의 분위기로 두루 싸기를 마치 공기가 지구를 두루 싼 것같이 하셨다. 누구든지 이 생기를 주는 분위기를 호흡하기를 선택하는 자들은 살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남녀가 되기까지 자라날 것이다. SC 68.1

꽃이 태양을 향함으로 밝은 햇빛이 꽃의 균정미(均整美)를 이루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해"이신 예수께로 향할 때에 하늘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고 우리의 품성은 계발되어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SC 68.2

예수의 다음의 말씀은 같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4, 5). 그대들이 거룩한 생애를 살려고 하면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원체에 붙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의존(依存)해야 할 것이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 생명도 없는 것이다. 시험을 대항하며 은혜 가운데 자라며 정결해질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그의 안에 거함으로 품성이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들은 그에게서 생명을 받음으로 시들지도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될 것이다. SC 68.3

많은 사람은 저희 혼자서 무슨 일을 좀 해야 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저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의지하였으니 이제는 저희 자신의 힘으로 옳은 생애를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모두 실패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고 하셨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것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유용성(有用性)이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여부에 달렸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자라는 것도, 날마다 시간마다 그와 더불어

교통함으로, 그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믿음을 주장하실 뿐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자시다.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요 항상 계시는 자시다. 그는 우리의 가는 길에 처음과 나중에만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가는 길의 발자국마다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시 16:8)라고 하였다. SC 69.1

그대들은 혹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까." 하고 묻는가? 그대들이 처음에 그를 받아들인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할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골 2:6).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히 10:38). 그대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를 봉사하며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바쳤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 그대들은 자신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없으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로 믿었으니,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동시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것이다. 즉 바치고, 받음으로 자라날 것이다. 그대들은 모든 것-마음과 의지와 봉사-을 바칠 것이니 그의 모든 요구를 응하기 위하여 그대 자신을 그에게 바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그대의 마음 안에 계셔서 그대의 힘과 그대의 의와 그대의 영원한 돕는 자가 되시는 온갖 축복이 충만한 그리스도-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순종할 힘을 얻을 것이다. SC 69.2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가 첫번째 할 일로 삼으라. 또한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SC 70.1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애는 안정(安靜)한 생애이다. 광희(狂喜)적 기분은 없을지라도 계속적 안정한 의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대들의 소망은 그대들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있다. 그대들의 연약함을 그의 힘과 연합하고 그대들의 어리석음을

그의 지혜와 연합하고 그대들의 의지의 박약함을 그의 견인불발과 연합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자신을 생각지 말고 그리스도를 쳐다보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완전하심에 대하여 생각하라. 극기의 그리스도, 굴욕을 받으신 그리스도, 순결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심령의 명상할 제목이다. 그대들이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를 모방함으로, 그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되는 것이다. SC 70.2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하셨다. 이 말씀에는 안식과 확고함과 신뢰의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다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는 초청을 하신다. 시편 기자의 말도 역시 이와 같은 뜻을 표시하여 이르기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시 37:7)고 하였다. 또한 이사야도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사 30:15)이라는 보증을 주었다. 이 안식은 활동함이 없는 데서 얻을 것이 아니니 대개 구주의 초청 가운데는 다음의 말씀과 같이 안식에 대한 허락과 아울러 일하라는 요청도 포함되어 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마 11:29)라.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가장 충분히 안식함을 얻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장 열심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SC 71.1

우리의 마음이 자신에 대하여서만 생각할 때에는 우리는 힘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구주에게서 떠나게 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통하는 일을 방해하려는 것은 사단이 항상 꾀하는 일이다. 세상의 오락, 생활상 염려와 고민과 비통, 다른 사람의 결점 또는 자신의 결점과 불완전함, 이런 것들의 전부 혹은 일부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사단은 애쓸 것이다. 그의 간계(奸計)에 빠지지 말라. 사단은 참으로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의 결점과 약점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저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여서 자기가 승리를 얻으려고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삼지 말고 또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염려는 사람을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시는 자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하자. 그를 생각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리라. 모든 의혹을 버리고 공포심을 없이 하여 버리라.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갈 2:20)고 말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그대가 맡긴 것을 능히 보호하실 수 있다. 그대가 자신을 그의 손에 맡기면 그는 그대로 하여금 사랑하신 자로 말미암아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하시리라. SC 71.2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을 때에 그는 사람 자신의 선택 외에는 아무런 능력으로도 능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써 당신 자신을 인류에게 붙들어 매셨다. 사단은 항상 이 줄을 끊도록-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서 끊도록-여러 가지 유혹들로 우리를 유혹할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깨어서 애쓰며 기도할 필요가 있나니 그리하여 어떠한 유혹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다른 주인을 선택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대개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할 자유가 있는 연고이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항상 그리스도만 주목하면 그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를 그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우리는 그를 항상 바라보는 가운데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8). SC 72.1

예수의 처음 제자들이 저희의 구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된 것도 역시 이와 같은 모양으로 된 것이다. 그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저들은 그가 저희에게 필요함을 느꼈다. 저들은 그를 찾고 만나서 그를 따랐다. 저들은 집에서나 식탁에서나 골방에서나 밭에서나 그와 같이 하였다. 저들은 마치 학생들이 교사와 함께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다니면서 날마다 그의 입술에서 새어 나오는 거룩한 진리를 배웠다. 저들은 종이 상전을 주목하는 것처럼 그를 주목하면서 저희가 할 의무를 배웠다. 이 제자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약 5:17)이었다. 저들도 우리와 같이 죄와 더불어 싸워야 했던 것이다. 저들도 거룩한 생애를 살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은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SC 72.2

구주의 형상을 가장 완전히 반사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본래 그러한 아름다운 품성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명예욕이 많았을 뿐 아니라 조급하여 억울함을 당할 때에 분개하기를 잘하였다. 그러나 거룩하신 자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해졌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일상 생애 가운데 나타난 능력과 인내, 권능과 애정, 위엄(威嚴)과 겸손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은 찬탄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 가게 되어 마침내 그는 자기 주님에 대한 사랑에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의 조급하고 야심 많은 성미는 그리스도의 조성(造成)하시는 능력에 맡겨졌다. 성신의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그의 품성을 변화시켰다. 이것은 예수와 연합함으로 생기는 확실한 결과이다. 그리스도께서 마음 안에 거하시면 그의 성질은 온전히 변화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과 그의 사랑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심령을 안정시키고 사상과 소원을 하나님과 하늘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SC 73.1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가 아직도 임재(臨在)하여 계시는 감(感)이 있었다. 그것은 사랑과 빛이 충만한 개인적인 임재이었다. 저들과 같이 다니시고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신 예수, 저들의 마음에 희망과 위안을 주신 구주께서 오히려 평강의 기별을 말씀하시는 도중에 저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오르셨는데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는 음성이 그를 영접하는 구름 같은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들려왔다. 그는 사람의 형체를 쓰신대로 하늘에 오르셨다. 저들은 그가 여전히 저희의 친구와 구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신 것과 그의 동정은 변함이 없는 것과 그는 아직도 고생하는 인류로 더불어 일체가 되시는 것을 알았다. 그는 구속받은 자를 위하여 당신이 갚으신 값을 기억케 하는 의미로 자기의 상한 수족을 아버지께 보이면서 당신의 보혈의 공로를 하나님께 제시(提示)하신다는 것을 저들은 알았다. 저들은 예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시려고 승천하신 것과 또 그가 와서 저희를 당신에게로 데려가실 것을 알았다. SC 73.2

예수 승천 후에는 저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의 소원을 하늘 아버지께 열심으로 아뢰었다. 저희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 16:23, 24)고 하신 구주의 보증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엄숙하게 엎드려 기도하였다. 저희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8:34)는 유력한 논증을 가지고 신앙의 손을 더욱 높이 쳐들었다. 그리하여 오순절 날에는 저희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바 "너희 속에 계"(요 14:17)신 보혜사가 저희에게 임하였다. 그가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요 16:7)라고 하셨다.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 마음속에 항상 거하시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저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그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기 때보다 더욱 밀접하게 되었다. 내재(內在)하신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과 권능이 저들을 통하여 비치었으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행 4:13) 알았다. SC 74.1

그리스도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구주가 되신 것처럼 오늘날의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대개 그가 자기를 둘러 모인 제자의 적은 무리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올린 기도 가운데도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요 17:20)라고 하셨다. SC 75.1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되 그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하나가 되기를 구하셨다. 이 연합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연합인가! 구주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들이...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요 5:19).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요 14:10)고 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그는 우리 속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빌 2:13)실 것이다. 우리는 그가 행하신 것같이 행하게 될 것이요 또한 같은 정신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를 사랑하며 그의 안에 거함으로써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 4:15). SC 75.2

9장 사업과 생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생명과 빛과 기쁨의 근원이시다. 태양에서 발하는 광선과 같이 샘에서 흘러내리는 개천 물과 같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의 온 피조물에게 이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이 넘쳐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축복을 주게 될 것이다. SC 77.1

우리 구주의 기쁨은 타락한 인류를 향상시켜서 구원하시는 데 있었다. 그는 이 기쁨을 인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까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와같이 천사들도 항상 남의 행복을 위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 이것이 저들의 기쁨이다. 품격과 계급이 열등한 가련한 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은 이기심이 있는 자들이 비천한 봉사로 여기는 바이나 그것이 죄가 없는 천사들이 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적 사랑의 정신은 온 하늘에 충만한 정신이니 그것이 곧 하늘의 행복의 요소이다. 이 정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정신이요, 또 이 일은 그들이 하여야 할 일이다. SC 77.2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마치 좋은 향기 같아서 그것을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이 사랑의 거룩한 감화는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은 마치 사막 가운데 있는 샘과 같이 흘러서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할 뿐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마시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만든다. SC 77.3

예수에 대한 사랑은 인류를 복되게 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표현될 것이다. 이 사랑은 또한 우리 천부께서 돌보시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과 온정과 동정을 일으킬 것이다. SC 77.4

구주의 지상 생애는 안일과 자신만을 위한 생애가 아니었고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꾸준히 열렬히 피곤함을 모르는 노력으로 수고하는 생애였다. 그는 말구유에서부터 갈바리에 이르기까지 극기의 길을 걸어가셨나니 힘드는 일과 괴로운 여행과 심신을 소모시키는 수고와 노력에서 조금도 벗어나려고 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말씀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 20:28)고 하셨다. 이것이 그의 생애의 큰 목적이었다. 이외의 것은 다 둘째 것이요, 부수적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의 사업을 마치는 것이 그의 양식이었다. 자신과 사욕은 그의 일 가운데 조금도 섞이지 아니하였다. SC 78.1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에게 하늘의 선물을 얻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이라도 하기를 기뻐할 것이다. 저들은 세상을 저들이 살기에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하여 저희의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정신은 참으로 회개한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생긴다.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나가자마자 그 마음 가운데 예수라 하는 생각이 날 것이며 사람을 구원하고 성결케 하는 진리를 그 마음 가운데 감추어 둘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옷입 듯하고 그의 내재적 신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면 우리는 잠잠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을진대 우리는 무엇을 말할 것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빌립이 구주를 처음 만나 보았을 때와 같이 다른 사람을 구주께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점과 내세의 보이지 않는 실재를 그들에게 보여 주려고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될 것이다. SC 78.2

남을 복되게 하려는 노력은 우리 자신에게 복이 돌아오게 한다. 구속의 경륜 가운데 우리로 한 역할을 담당케 하신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 그는 먼저 사람에게 신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다음으로 저희 동포들에게 축복을 전하여 주는 특권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예요 최대의 기쁨이다. 이렇게 사랑의 봉사 사업에 참예하는 자들은 저희의 창조주께로 가장 가까이 이르게 되는 것이다. SC 79.1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기별과 모든 사랑의 봉사 사업을 하늘 천사들에게 맡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방법을 쓰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무한하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사욕 없는 이 봉사 사업에서 생기는 축복과 기쁨과 영적 향상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동역자(同役者)가 되게 하셨다. SC 79.2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예함으로 그에게 대한 동정심을 가질 것이다.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때마다 그 은혜를 베푸는 자의 마음에는 자선적 정신이 더욱 강하여지고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고후 8:9) 하신 구세주와 더욱 밀접히 연결하게 된다. 우리의 생애가 우리에게 복되게 됨은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때에만 될 수 있다. SC 79.3

그대들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행하기를 원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 일하여, 그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대들은 신령한 사물에서 좀 더 깊은 경험과 좀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함을 느끼게 될 것이요 또한 의를 주리고 목마른 것같이 사모할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이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게 되고, 그대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그대의 심령은 구원의 우물에서 충분히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그대들이 당하는 반대와 시련은 그대들을 성경과 기도로 달려가게 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중에서 자라나게 될 것이고 또 풍부한 경험을 얻게 될 것이다. SC 80.1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수고를 하는 정신은 그의 품성을 침착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훌륭해지게 하여 그에게 화평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 포부는 고상하여진다. 태만과 이기심은 있을 여지가 없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미덕을 수련하는 자들은 자라나게 되고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에 강하여진다. 저들은 명철한 영적 식별력과 확고히 자라나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기도함으로 더욱 많은 능력을 얻을 것이다.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신은 신성한 감촉에 응해서 심령의 거룩한 융화를 일으킨다. 이와같이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SC 80.2

은혜 중에 자라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업을 사욕이 없이 행하는 것이니 곧 우리의 재능이 미치는 대로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 되게 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다. 힘이라는 것은 활동함으로 생기는 것이니 활동이야말로 생명의 필수 조건이다. 은혜로써 주는 복을 받음으로만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은 마치 일하지 아니하고 먹고 살려는 자와 같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에 있어서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언제나 퇴화와 쇠퇴를 일으키는 것이다. 자기의 수족을 쓰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지 아니하여 그 수족을 쓸 힘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쓰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가 이미 가졌던 능력까지 잃어버릴 것이다. SC 80.3

그리스도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지정하신 기관이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임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의 재능과 기회가 있는 대로 구주의 맡기신 임무를 성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자에게 빚진 자가 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다만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요 저들에게도 비추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SC 81.1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이 의무에 충실하면 이교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현재 한 사람 있는 곳에 수 천 명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사업에 자기가 친히 종사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은 저희의 재물과 저희의 동정과 저희의 기도로 이 사업을 지지(支持)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국에서 영혼 구원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SC 81.2

가정 범위 안에 우리의 의무가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려고 구태여 먼 이교의 지방으로 가거나 가정 범위를 떠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 일을 가정에서와 교회에서와 또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거래하는 자들과 상대하여 할 수 있다. SC 81.3

우리 구주의 지상 생애의 대부분은 나사렛의 목공장에서 고생스러운 일을 하시면서 보내셨다. 생명의 주께서 농부와 노동자들 사이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존경하여 주지도 않는 가운데서 지내실 때에 부림을 받는 천사들이 그를 수종하였다. 그는 그의 비천한 직장에서 일하실 때에도 그가 병자를 고치시고 갈릴리의 거친 물결 위로 걸어가셨을 때와 같이 충실히 당신의 사명을 이행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천한 의무와 가장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라도 예수와 동행하며 동역할 수 있다. SC 81.4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전 7:24)고 하였다. 장사꾼도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 자기의 구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가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이면 그는 자기의 신앙을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실천하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직공들도 갈릴리의 산간에서 비천한 생업으로 수고하신 자의 근실하고 충성된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는 각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선행을 보고 저희의 조물주와 구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행하여야 할 것이다. SC 82.1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저희보다 더 우수한 천재와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하여 저희 재능을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일에 바치지 않으려는 구실을 삼았다. 특수한 재능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업에 저희 재능을 바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은 재능은 특별히 천혜(天惠)를 받은 계급에게만 부여되고 거기에 제외(除外)된 다른 사람들은 물론 수고나 보상에 참예키 위하여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유에도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집 주인이 그 종들을 부르고 각각 그 일을 맡겼다. SC 82.2

우리는 아무리 비천한 임무라도 사랑의 정신으로 "주께 하듯"(골 3:23) 이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이 생애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우리의 주위를 에워싸게 되고 우리의 감화는 다른 사람을 고상하게 하며 복 되게 할 것이다. SC 82.3

그대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착수도 하지 않고 무슨 큰 기회를 기다리거나 비상한 재능을 가지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그대들은 세상이 그대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대의 매일의 생애가 그대의 신앙의 깨끗함과 독실함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대가 저희를 유익되게 하려는 소원을 가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 같으면 그대의 노력이 전혀 허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SC 83.1

예수의 제자 중에 아무리 비천하고 가난한 자라도 남에게 복의 기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저들은 비록 저희가 무슨 특별히 선한 일을 행한다고는 느끼지 않을는지 모르나, 저희의 무의식중에 끼치는 감화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축복의 파동을 일으키어 그것이 널리 또는 깊이 미치게 될 것이니 그 복된 결과는 저희가 최후 보상의 날까지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저들은 무슨 큰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 저희는 성공에 대해서 염려함으로 스스로 초조할 필요는 없다. 저들은 다만 가만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로 맡겨진 일을 신실히 행할 것뿐이니 그리하여 저들의 생애는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하여 저들은 영적으로 점점 자라나서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요, 또한 현세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자가 되어 내세의 더욱 고상한 일과 완전한 기쁨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SC 83.2

10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가 당신과 더불어 교통하게 하시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천연계는 우리의 감각에게 간단없이 말한다. 열린 마음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만물에 나타난 그의 사랑과 영광에 감복(感服)될 것이다. 기울여 듣는 귀는 천연계의 만물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기별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푸른 들, 울창한 수목, 새싹과 꽃, 지나가는 구름, 내리는 비, 졸졸 흐르는 시내, 하늘의 영광들은 우리의 마음에 말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자와 친숙해지기를 요청한다. SC 85.1

우리 구주께서는 그의 귀중한 교훈을 천연계의 사물들과 연결하셨다. 일상 생애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정들은 물론이거니와 나무와 새와 골짜기의 꽃들과 산과 호수와 아름다운 하늘들을 진리의 말씀과 관련시키신 것은 수고가 많은 인간 생활의 분망한 중에라도 당신의 교훈이 자주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SC 85.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당신의 지으신 만물을 감상(感賞)하며 또한 당신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단장하여 주신 그 단순하고 은근한 미(美)를 즐기기를 원하신다. 그는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외형상으로 아름다운 것보다는 품성의 미를 더욱 사랑하신다. 그는 우리가 꽃이 은근하고 우아한 것처럼 깨끗하고 단순한 품성을 기르기를 원하신다. SC 85.3

우리가 만일 귀를 기울여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은 우리에게 순종과 신뢰의 귀중한 공과를 가르쳐 줄 것이다. 광막한 공간의 자취 없는 궤도를 따라 세세토록 저희의 일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별부터 가장 미소(微小)한 원자(原子)에 이르기까지 천연계의 만물은 조물주의 뜻을 순종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붙드신다. 광대무변한 공간에 널려 있는 무수한 세계를 붙드시는 이는 동시에 아무 두려움이 없이 노래를 부르는 작은 참새의 필요한 것들도 돌보신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저희가 날마다의 저희의 일을 하러 나갈 때나 밤에 자리에 누울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부자가 저희의 화려한 집에서 잔치를 먹을 때나 가난한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변변치 못한 식상에 둘러 앉혔을 때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돌보신다. 우리의 흘리는 눈물 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또 우리의 웃는 웃음 가운데 그가 보시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SC 85.4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완전히 믿었다고 하면 모든 쓸데없는 염려는 없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는 지금처럼 실망으로 가득 차지 않게 되었을 것이니 이는 많은 염려로 인하여 괴로워하시지도 않고 그 염려의 무게에 눌리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것을 다 맡긴 까닭이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이 맛보지 못한 심령의 안식을 누렸을 것이다. SC 86.1

그대들의 감각이 이 세상의 주목을 끄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고 즐길 때에 죄와 사망으로 해를 입지 않은 장차 임할 내세를 생각해 보라. 거기에는 만물의 표면에 저주의 흔적조차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구원받은 자의 본향을 상상해 보고 또 그것이 그대의 상상보다도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을 기억하라.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희미한 것을 볼 뿐이다.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전 2:9)고 하였다. SC 86.2

시인이나 박물학자들은 천연계에 관하여 여러 가지로 말할 것이 있을 것이다. 이 땅의 미(美)를 가장 높은 감상(鑑賞)으로 즐길 자는 그리스도인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들이 자기의 하늘 아버지가 손수 만드신 것임을 알고 꽃과 관목(灌木)과 수목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다. 산과 골짜기와 강과 바다가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 아무라도 그것들에 대한 깊은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SC 87.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되는 일을 통하여 또는 사람의 마음에 미치는 성신의 감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사정과 환경 가운데서 또는 날마다 우리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변환(變換) 가운데서 그것을 깨달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귀중한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바를 살핀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시 33:5).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시 107:43)라고 하였다. SC 87.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성경)으로 우리에게 이르신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이 인류를 상대하시는 방법과 구속 사업들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이 성경 가운데는 부조(父祖)들과 선자자들과 다른 성인들의 역사가 우리 앞에 밝히 드러나 있다. 저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약 5:17)이었다. 우리는 저들이 우리가 당한 낙담 가운데서 어떻게 분투한 것과 또 어떻게 우리처럼 시험에 패하였으나 다시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한 것을 본다. 이것을 봄으로 의를 얻으려고 애쓰는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저들이 당한 귀한 경험과 저들이 누린 빛과 사랑과 축복에 대하여 또한 저들이 받은 은혜로 이룬 사적에 대하여 읽을 때에 저들을 감동시킨 그와 같은 정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들에게 지지 않겠다는 거룩한 경쟁심을 일으키고 또 저들과 같은 품성을 가지고자 하는 욕망-저들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욕망-을 일으킬 것이다. SC 87.3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내(우리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시는 구주)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라고 하였은즉 신약 성경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과연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창조에 대한 첫째 기록-"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에서부터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계 22:12)라고 하신 최후의 허락까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적을 읽고 또한 그의 음성을 듣는다. 만일 그대가 구주를 잘 알려고 하면 성경을 연구하라. SC 88.1

온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들의 목이 타는 갈증을 없애 주는 생수이다. 그것은 또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다. 예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의 속에 생명이 없느리라"(요 6:53)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다음의 말씀으로써 설명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요 6:63).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물질계에서 그러한 것과 같이 신령계(神靈界)에서도 그러하다. 우리의 영적 활기와 능력을 주는 것은 우리가 묵상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SC 88.2

구속의 문제는 천사들도 알려고 원하는 문제이며 그것은 또한 영원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의 과학과 노래가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지금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만한 문제가 아닌가? 예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희생은 가장

신중하고 엄숙한 묵고(默考)를 요한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구속자요 중보자이신 그의 품성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자의 사명을 묵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와같이 하늘에 대한 문제를 묵고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점점 강하여질 것이요 우리의 기도는 더욱 더 하나님의 받아들이시는 바 될 것이니 이는 우리의 기도가 더욱 믿음과 사랑으로 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이요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께 대하여 더욱 충실한 신뢰를 가지게 될 것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의 능력에 대하여 날마다 산 경험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SC 88.3

우리가 구세주의 완전하심에 대하여 묵상하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 그의 순결하신 형상으로 화하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숭배하는 것이 이와 같아지기 위하여 심령이 주리고 목마른 것같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많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그에 대하여 더욱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것이요, 그를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이다. SC 89.1

성경은 학자들만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일반 민중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구원에 필요한 큰 진리는 백주(白晝)와 같이 명백히 드러났나니 누구든지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 대신에 자기 자신의 판단을 따라 행하는 자들 외에는 아무라도 잘못되거나 저희의 길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SC 89.2

우리는 성경에 가르친 바를 어떤 사람이 증거하는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약하게 하고 기능을 줄어들게 할 것이다. 고상한 정신력은 그것을 집중시켜야 할 가치 있는 문제에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줄어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할 재능까지 잃어버리게 될는지 모른다. 성경을 성경으로 대조하고 신령한 사물을 신령한 사물로 대조하면서 성경상 문제들을 서로 관련시켜 상고하는 일에 우리의 정신을 사용하면 그것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SC 89.3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지능을 발달시킴에 적합한 것은 없다. 다른 책은 성경의 광범하고 고상한 진리처럼 사상을 고상하게 하고 재능을 발달시키는 데 그렇게

효력이 있지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연구한다면 사람은 현대에 있어서 보기 드문 관대한 마음과 고상한 품성과 확고한 목적을 가지게 될 것이다. SC 90.1

그러나 성경을 급히 읽으면 별로 유익을 얻지 못한다. 성경 전체를 통독할지라도 오히려 그 미점(美點)을 보지 못하고 성경의 깊고 숨은 뜻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한 구절을 그 의미가 마음에 명백히 깨달아지고 또 그 구절과 구원의 경륜과의 관계를 확연히 이해하기까지 연구하면 그것은 아무 확고한 목적이 없이 또는 아무 확실한 교훈을 받지 못하면서 여러 장을 읽는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구절들을 기억하라.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에라도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다. SC 90.2

우리는 열심 있게 그리고 기도하는 정신으로 연구하지 않고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너무 분명하여서 오해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어떤 부분은 얼른 보아서 그 뜻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것도 있다. 성경은 성경과 비교해서 연구해야 한다. 깊이 살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연구에는 풍성한 보수가 있을 것이다. 광부(鑛夫)가 지면(地面)아래 감춰진 귀금속의 광맥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보물을 찾듯 꾸준히 상고하는 자는 주의성 없이 찾는 눈에 숨겨진 가장 가치 있는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영감(靈感)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생명의 샘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과 같이 흐를 것이다. SC 91.1

성경을 기도하지 않고 절대 연구하지 마라. 성경을 펴기 전에 먼저 성신이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시기를 구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이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나왔을 때에 구주께서 외치시기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요 1:47)라고 하셨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요 1:48) 하고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게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요 1:48)고 하셨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하여 주께 빛을 구할 때에 그는 은밀한 기도의 장소에 있는 우리를 보실 것이다. 광명한 세계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신의 지도를 구하는 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SC 91.2

성신은 구주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의 의의 순결함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큰 구원을 보여 주는 일은 그의 직무이다. 예수께서 "그가(성령)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요 16:14) 하셨다. 진리의 신은 신령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유일의 유력한 교사이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사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당신의 성신을 우리의 스승과 끊임없는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을 볼 때에 그가 얼마나 인류를 귀중히 여기셨는지 가히 알 것이다. SC 91.3

11장 기도의 특권

하나님께서는 천연계와 계시(성경)을 통하여 당신의 섭리와 성신의 감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넉넉지 않으니, 우리는 우리의 심정을 그의 앞에 토로(吐露)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영적 생명과 힘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실제적 교제가 있어야 한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그를 사모하기도 하고 그의 업적(業績)과 그의 자비와 그의 축복에 대하여 묵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우리의 실생활에 대하여 그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SC 93.1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 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SC 93.2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그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는 저희의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저희의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겨 버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그의 보증은 또한 우리에게 대한 보증도 된다. SC 93.3

예수 자신도 사람들 사이에 거하실 때에 자주 기도하셨다. 우리 구주께서는 그의 의무와 시련을 위하여 굳세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아버지께 새로운 능력의 공급을 구한 탄원자와 간구자가 되신 사실은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이 궁핍하고 연약하였던 것을 증거한다. 그는 범사에 우리의 모본이시다. 그는 우리와 같이 연약한 한 형제로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히 4:15)는 자니 그의 품성이 악을 물리치셨다. 그는 죄악 세상에서 심령의 투쟁과 고민을 당하였다. 그의 인성(人性)은 그에게 기도가 필요하게 하고 기도가 특권이 되게 하였다. 그는 당신의 아버지와 교통하는 가운데서 위안과 기쁨을 얻었다. 인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은즉 하물며 연약하고 죄가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은 더욱 열심히 항상 기도할 필요를 느껴야 할 것이다. SC 93.4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무한한 사랑의 샘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듯 적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중에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진정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려고 고대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기를 매우 싫어한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그리워하시고 저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려고 하시지만 그들이 그렇듯 기도를 적게 하고, 그렇듯 믿음이 적으니 이것을 볼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시험에 빠지기 쉬운 불상하고 무능력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좋아하며 그에게 가까이 있기를 좋아한다. 저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저희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성신의 빛과 그와 교제함이 없이 행하기를 만족히 여기는 듯하다. SC 94.1

마귀는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어둠으로 가두어 놓는다. 이 원수의 속삭이는 시험은 저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한다. 이 모든 것은 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청하실 때에 그 주신 바 특권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資源-富, 力, 智 등)을 쌓아 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끊임없는 기도와 늘 깨어 있음이 없이는 우리는 부주의하게 되고 정도에서 탈선할 위험성이 있게 된다. 대적 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간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SC 94.2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려면 우리에게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조건들 중 첫째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그는 허락하시기를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사 44:3)게 하리라고 하셨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같이 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확실히 배부르게 될 것이다. 성신의 감화를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열어 놓아야 할지니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SC 95.1

우리에게 크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자체가 한 논제(論題)가 되나니,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를 웅변으로 변호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마 7:7)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롬 8:32). SC 95.2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죄를 품든지, 알고 지은 죄를 버리지 않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회오하고 통회하는 자의 기도는 언제든지 받으실 것이다. 모든 아는 죄를 바로잡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의 공로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의 보혈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주께서 받으시는 조건을 응하기 위하여 할 일이 있다. SC 95.3

응답받은 기도의 또 하나의 요소는 믿음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는가? SC 96.1

허락은 광범하고 무한하며 허락하신 이는 미쁘시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바로 그때 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잘못이 너무 많고 앞에 것을 잘 보지 못함으로 어떤 때에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구한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우리가 영적으로 밝아진 눈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 자신도 원하게 될 것-을 주심으로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듯한 때라도 우리는 그 허락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니 대개 응답의 시기가 확실히 오게 되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꼭 그 방식으로 응답되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꼭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시므로 잘못하실

리가 없는 것이요, 지극히 선하심으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런즉 비록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를 의지하기를 의심하지 말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는 그의 확실한 허락을 믿으라. SC 96.2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에 붙잡혀 우리가 밝히 알 수 없는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의혹이 더욱 커지고 깊어질 뿐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무력한 그대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비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한하신 지식을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자기의 뜻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자에게 우리의 소원을 고하면 그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 말미암아 무한하신 자의 마음과 연락된다. 비록 기도하는 그 당시에는 우리 구주의 얼굴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현저한 증거는 볼 수 없을지라도 그가 그렇게 보시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우리는 그가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의 손은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안찰하신다. SC 96.3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과 축복을 구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마 6:12)라고 기도를 하면서 어찌 용서성이 없는 정신을 품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랄진대 우리는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양으로 그와 같은 정도로 남을 용서하여야 할 것이다. SC 97.1

기도를 꾸준히 하는 일은 응답을 받는 한 조건이 된다. 우리의 믿음과 경험이 자라나기를 원할진대 우리는 항상 기도하여야 한다. 우리는 "기도를 항상 하며",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롬 12:12; 골 4:2) 있어야 한다.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 4:7)고 권하였다. 바울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고 가르쳤다. 유다는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유 20, 21)라 하였다.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됨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고 다시 순결과 거룩함이 우리의 생명에서 하나님께로 흘러 돌아가는 것이다. SC 97.2

기도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아무 일로든지 그대는 방해를 받지 말라. 예수와 그대들의 심령 사이에는 교통이 막히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라. 기도를 습관적으로 늘 하는 곳으로 가서 하도록 기회를 찾으라.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참으로 원하는 자들은 기도회에 참석하게 될 것이요, 또 저희의 의무를 신실히 행하며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얻으려고 열심히 갈망하게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가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들어가기 위하여 온갖 기회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SC 98.1

우리는 가정 안에서 기도할 것이요 무엇보다도 은밀한 기도를 등한히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니 대개 그것이 심령의 생명인 까닭이다. 기도를 등한히 하면서 영혼이 번영할 수는 없다. 가족 기도와 공중 기도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홀로 조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앞에 우리의 심령을 내어 놓을 것이다. 은밀한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이 들으셔야 한다. 호기심을 가진 자의 귀는 이러한 기도의 호소를 들을 것이 없는 것이다. 은밀한 기도는 심령이 주위의 영향과 소란으로 방해받지 않는다. 그 심령은 조용히 그리고도 열렬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찾게 될 것이다. 은밀한 것을 보시고 중심에서 나오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자에게서 나오는 그 감화는 쾌하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침착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며 또 사단과의 투쟁에 있어서 자신의 심령을 강하게 하고 붙들어 나아가기 위하여 신령한 빛을 수집(收集)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성채(城砦)이시다. SC 98.2

그대들은 골방에서 기도할 것이요 그대들이 매일이 업무를 행할 때에도 그대들의 마음을 자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도 이렇게 함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묵상 기도는 좋은 향내와 같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 심지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자는 사단도 능히 정복할 수 없다. SC 98.3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에 부적당한 시간이나 장소는 없다. 아무것도 우리의 마음을 열성 있는 기도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거리의 사람이 많은 곳에서나 일에 종사하고 있는 중에서라도 우리는 옛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왕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뢴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의 지도를 구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마음문을 열어 놓고 예수께서 하늘의 손님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를 청하는 초청을 보내야 한다. SC 99.1

비록 우리의 주위가 부패된 분위기로 둘려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더러운 공기를 호흡하지 않고 하늘의 깨끗한 공기 가운데서 살 수 있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올림으로 불순(不純)한 망상이나 불신성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문을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마음문을 열어 놓는 자들은 이 땅의 분위기보다 더 거룩한 분위기 가운데서 행할 수 있을 것이며 하늘과 간단없는 교통을 지속(持續)할 수 있을 것이다. SC 99.2

우리는 예수에 대한 더욱 명확한 견해(見解)와 영원한 실재(實在)에 대한 더욱 충분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성결함의 미(美)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채워야 할 것인바 이것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하늘 사물의 계시 받기를 구해야 할 것이다. SC 99.3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공기를 호흡하기를 허락하시도록 우리의 심령을 항상 하늘로 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살므로 뜻하지 않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마치 화초가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것이다. SC 99.4

그대들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라. 그대들은 그를 괴롭게 하거나 피곤케 할 수 없다. 그대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는 당신의 자녀들의 요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시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약 5:11). 그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히 여기신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어 놓으라. 그가 감당하시기에 과대(過大)한 것은 없나니 대개 그는 세계를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시는 이심이다.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가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우리의 경험 중에 어떠한 사건이 너무 흉악하다고 하여 그것을 보지 않으시는 것이 없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그가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다. 당신의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근심이나 기분을 좋게 하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새어 나오는 어떠한 진정한 기도라도 우리의 천부께서 그것들을 못본체 하시거나 거기에

직접으로 관심을 두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시 147:3). 하나님과 각 사람과의 관계는 그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명료하고도 완전하다. SC 100.1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요 16:26, 27, 15:16)고 하셨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만 기도의 시작과 끝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허락하신 바를 믿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의 사업을 행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SC 100.2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아무라도 예배적 행사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 위하여 은둔자(隱遁者)나 승려(僧侶)가 되어 세상을 피하기를 원치 아니하신다. 우리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산과 무리들 사이에 계신 생애-와 같아야 할 것이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래지 않아 기도를 그치든지 또는 그의 기도가 일종의 형식적 일과(日課)가 되고 말 것이다.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의 의무와 십자가를 지는 일의 범위를 벗어날 때에 또는 사람이 저희를 위하여 열성으로 일하신 구주를 위하여 열심으로 일하기를 그치는 때에 그 사람은 기도의 제목(題目)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도할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의 기도는 개인적이요 이기적이 된다. 그들은 인류의 궁핍에 대하여서나 또는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하기 위한 힘을 간구하는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다. SC 101.1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에서 피차에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교제의 특권을 등한히 할 때 우리는 손실을 입는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그 생생한 맛과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그 진리의 성결케 하는 감화로 말미암아 깨우치거나 각성하기를 그치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쇠약해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귀는 가운데 피차 동정하는 일이 부족함으로 큰 손해를 본다. 고독(孤獨)주의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사교적 소질을 적당히 배양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남을 동정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 우리를 계발시키고 강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SC 101.2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피차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에 관한 귀한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저희의 마음도 시원케 되고 다른 사람도 시원케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천부에 대하여 더 배우며 그의 은혜에 대하여 새로운 체험을 얻을 수 있다. 그리하면 우리는 그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지며 격려함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 더욱 생각하고 자신에 대하여 적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우리와 함께하실 것이다. SC 101.3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시는 증거를 볼 때마다 그를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에 그를 생각하게 될 것이요 또한 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를 찬송하기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현세(現世)의 사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기에 흥미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함이니 우리의 기쁨이나 슬픔을 그와 더불어 함께 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무한히 큰 이유가 있나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첫째로 삼고 그의 선하심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가장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애착심을 두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끼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항상 그를 생각하게 하며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은혜 주시는 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의 줄로 우리를 그와 묶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이 세상 낮은 땅에 너무 가까이 살고 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위에 있는 성소의 열린 문을 쳐다보자.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히 7:25)는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췬다. SC 102.1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시 107:8) 그를 더욱 찬송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전연 구하는 것과 받는 것으로만 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소용되는 것만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받는 복에 대하여는 도무지

생각지 않는 자가 되지 말자. 우리는 기도도 별로 많이 하지 않고 감사하기를 너무 적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항상 받는 자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기를 적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하여 얼마나 그를 적게 찬송하는지! SC 102.2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을 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신 12:7)고 하셨다. 무릇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일은 즐거움과 찬송의 노래와 감사함으로 해야 할 것이요, 슬픔과 우울함으로 할 것이 아니다. SC 103.1

"우리의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시다. 그를 섬기는 일을 마음을 슬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일로 생각지 말 것이다. 주를 경배하고 그의 사업에 참예하는 것은 즐거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자녀를 위하여 그처럼 큰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당신을 각박하고 까다로운 주인처럼 여기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그는 저들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니 저들이 그에게 예배할 때에 저들과 함께 계셔서 저들에게 축복하고 위로하시므로 저들의 마음을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 주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섬기는 가운데서 위안을 얻으며 그의 사업에서 고난보다도 즐거움을 찾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는 당신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당신이 돌보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대한 귀한 감상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날마다 하는 모든 일에 용기를 얻으며 범사에 정직하고 충실하게 할 은혜를 가지게 되기를 원하신다. SC 103.2

우리는 십자가에 둘러 모일 것이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는 우리의 명상(瞑想)과 담화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요 우리의 가장 기쁜 정서(情緖)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는 모든 축복을 우리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것이며, 우리는 그의 크신 축복을 느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기를 기뻐하여야 할 것이다. SC 103.3

우리의 심령은 찬미의 날개를 타므로써 하늘로 더욱 가까이 오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조정에서 노래와 음악으로 경배를 받으시나니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표시할 때에 하늘 천사의 무리가 경배하는 것과 근사한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시 50:23)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 조물주 앞에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사 51:3)로 나아가자." SC 104.1

12장 의혹을 어찌할까

많은 사람 특히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시작한 지 오래지 아니한 자들은 혹시 회의론자(懷疑論者)의 말로 번민을 당하는 수가 있다. 성경에는 저들이 해석할 수 없는 것과 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나니 사단은 이것들을 이용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하신 바라는 저들의 믿음을 동요시키려고 한다. 그리하여 저들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바른길을 알 수 있을까? 만일에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의혹과 번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한다. SC 105.1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될 만한 충분한 증거도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의 존재, 그의 품성, 그의 말씀의 진실성들은 모두 우리 이성(理性)에 호소하는 증거로 말미암아 실증되나니 그 증거는 많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의혹될만한 점을 없이하여 버리시지 않으셨다. 우리의 믿음은 증거 위에 세울 것이요 실증 위에 세울 것이 아니다. 의심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할 조건이 있을 것이나 참으로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는 자들은 저희의 믿음을 세울 만한 증거를 많이 찾게 될 것이다. SC 105.2

생각이 유한한 인간으로는 무한하신 자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하시는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아무리 명민한 지능을 가진 자나 아무리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라도 그들에게는 언제나 거룩하신 자는 신비에 싸여 있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욥 11:7, 8). SC 105.3

사도 바울은 부르짖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고 하였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으나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시 97:2). 우리는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가 무한한 능력과 연합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처리하시는 방법과 또 어떠한 동기에 자극되어 그렇게 행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서 유익하리만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상은 전능하신 손과 사랑이 충만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신뢰할 수밖에 없다. SC 106.1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신령하신 저술자의 품성과 같이 유한한 사람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 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쓰신 것, 중생(重生), 부활, 그 외에 성경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거나 충분히 이해하기에 너무도 깊은 신비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까닭이 없다. 천연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둘려 있다. 아무리 비천한 생물이라도 매우 지혜가 많은 철학자의 능히 설명할 수 없는 난문제가 된다. 우리의 지식 범위 이상의 신기한 것들이 도처에 있다. 그러면 신령한 사물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길 것인가? 문제는 순전히 인간의 생각이 좁고 약한 데 있다.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그 신비가 신령한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은즉 우리가 그의 섭리의 모든 신비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여서 그의 말씀을 의심할 것이 아니다. SC 106.2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성경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벧후 3:16)고 하였다. 성경의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은 회의론자들이 성경을 공격하는 논증으로 들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만일 성경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사(記事)밖에 없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엄(尊嚴)을 생각이 유한한 자로도 깨달을 수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위 있는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에 제시된 문제들의 원대하고 신비한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SC 107.1

성경은 가장 고상한 교양을 받은 자의 마음을 경탄케 하고 혹하게 할 만큼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필요와 갈망에 꼭 맞도록 진리를 드러내는 동시에 또는 아무리 비천하고 교양이 없는 자라도 구원의 길을 분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단순히 진술된 진리가 논술(論述)하는 문제들은 너무도 고상하고 너무도 원대하고

사람의 이해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바이므로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받아들일 뿐이다. 이처럼 구속의 경륜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났으므로 각 사람은 하나님의 제정하신 방법을 따라 구원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는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는 믿고 나아갈 그 계단(階段)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진리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인 신비-진리를 보통으로 연구하는 자의 마음은 압복(壓服)시키나 진리를 진정으로 찾는 자에게는 존경과 믿음을 고취하는 신비-가 있다. 성경을 탐구(探求)할수록 그 성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념은 더욱 확고하여지나니 인간의 이론은 존엄한 하나님의 계시 앞에 굴복되고 마는 것이다. SC 107.2

우리가 성경의 큰 진리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고 승인하는 것은 유한한 생각으로는 무한하신 자를 이해하기에 부족하다는 것과 또한 사람은 그 제한된 지식으로는 전능하신 자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뿐이다. SC 108.1

회의론자와 불신자들은 성경의 모든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다. 그리고 성경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이라 하여도 다 이 점에 있어서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 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히 3:12)라고 하였다. 성경에 가르친 바를 엄밀히 연구하고 "하나님이 깊은 것"(고전 2:10)을 성경에 드러난 한도 안에서 상고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신 29:29). 그러나 사람의 연구력을 착란케 하는 것은 곧 사단의 일이다. 성경 진리를 연구하는 데 어떤 자존심이 섞일 때에는 사람들은 저희가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저희에게 만족하도록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조급하여지고 실망하게 된다. 저희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승인하는 것은 저희 자신에게 부끄러움이 된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저희에게 계시하여 주실 때까지 인내하여 기다리기를 원치 않는다. 저들은 성신의 도움을 받지 못한 저희의 인간적 지혜로써 성경을 이해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못되는 때에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 많은 이론과 교리가 성경상 교훈에 근거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그것이 성경의 대지(大旨)와 어그러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의심과 의혹을 주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곡해한 데 책임을 돌릴 것이다. SC 108.2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그의 하시는 일을 충분히 깨닫는 데 이를 수 있다면 그 점에 도달한 다음에는 저들에게는 그 이상 더 진리를 발견할 것이 없고 지식의 발달도 없고 정신과 마음의 발전도 없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도 지존자가 되시지 못할 것이요 사람은 지식과 학문의 극점까지 달하였으므로 더 향상하는 일이 그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와같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취어 있느니라"(골 2:3). 그러므로 사람은 영원무궁토록 항상 연구하고 항상 배울지라도 그의 보배로운 지혜와 선하심과 그의 능력을 배울 수 없을 것이다. SC 109.1

하나님께서는 비록 현세에서라도 당신의 말씀의 진리가 항상 당신의 백성에서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의 길이 있다. 즉 그 말씀을 주신 성신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심으로써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리라"(고전 2:10, 11) 그리고 구주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요 16:13, 14)고 하셨다. SC 109.2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의 사고력을 연단하기를 원하시나니 성경 연구는 아무 다른 연구로는 불가능한 정신을 건전하고 고상하게 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병약에 지배되는 변하기 쉬운 이론을 숭상하는 일을 조심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이해력이 흐려져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아주 명백한 진리까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데 이르지 않기를 원할진대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의 순진성과 믿음을 가지고 성신의 도움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생각하고 다른 편으로 그의 위대하심을 깨닫기에 우리의 무능한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겸손한 마음이 생겨야 할 것이고 그의

말씀(성경)을 펼 때에 마치 그가 계신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경외하는 마음으로 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때에는 우리의 이성은 그 이성 자체보다 더 우월한 권위를 인정해야 할 것이요, 우리의 마음과 지능은 크신 영원자존자(永遠自存者) 앞에 굴복해야 할 것이다. SC 109.3

얼른 이해하기 어렵고 분명치 못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 명백하고 단순하게 가르쳐 주신다. 그런데 성신의 지도가 없이는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을 억지로 풀거나 곡해할 염려가 있다. 성경을 많이 읽을지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나니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해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성경)을 경건한 마음과 기도하는 정신이 없이 펴거나 또는 생각과 애정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그의 뜻에 융화시키지 아니하고 펼 때에는 우리 마음은 의혹으로 흐려져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것이 도리어 회의사상(懷疑思想)을 강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옳지 않은 해석을 하게 한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합하기를 힘쓰지 아니하는 때에는 저희가 아무리 유식할지라도 성경을 해석하는 데 그릇되기가 쉬우니 그러므로 저들의 성경 해석을 그대로 받기는 위험하다. 무슨 착오(錯誤)를 찾으려고 성경을 살피는 자들은 영적 통찰력(洞察力)을 가지지 못한다. 저들은 난시적(亂視的) 눈을 가지므로 실상은 까다롭지 않고 단순한 것 가운데서도 의혹과 믿지 못할 만한 조건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SC 110.1

저들이 여러 가지로 가장하지만 저들이 의심하고 회의 사상을 품는 진정한 원인은 그 대부분이 죄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는 연고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교훈과 제재는 거만하고 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바를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으려면 진리를 알고자하는 진정한 갈망과 그 진리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충분히 찾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저들은 저희로 하여금 구원함을 얻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SC 111.1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 7:17) 하셨다. 그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시비하고 허물을 찾는 대신에 이미 그대에게 비춰진 빛에 유의(留意)하면 더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대는 분명히 이해한 모든 의무들을 이행하라. 그리하면 지금 그대가 이해치 못하는 것도 깨닫고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SC 111.2

모든 사람-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가장 무식한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나니 그것은 곧 경험적 증거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의 진실성과 그의 허락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친히 시험하여 보기를 요청하신다. 그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시 34:8)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친히 맛볼 것이다. 그는 또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요 16:24)라고 하셨다. 그의 허락하신 바는 성취될 것이다. 이 허락이 성취되지 않은 일이 지금까지 도무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성취 안 될 일이 도무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의 사랑의 충만함을 누릴 때에 우리의 의혹과 분명치 않은 점들은 그가 임재하신 데서 발하는 빛으로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SC 111.3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골 1:13)다고 하였다. 죽음에서 나와 생명에 들어간 자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인"(요 3:33)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는 "내가 필요하였던 그 도움을 예수에게서 찾았다. 모든 부족한 것이 보충함을 받았고 내 심령의 주림이 채움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성경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된다. 그대들이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묻는가?-이는 그가 내게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또 내가 왜 성경을 믿는지를 묻는가?-이는 성경이 나의 심령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참된 것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자신이 마음 속으로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을 안다. SC 112.1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들을 권면하여 말하기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벧후 3:18) 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자라날 때에 저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명백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저들은 성경의 거룩한 진리 가운데서 새 빛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각

시대의 교회 역사에 있어서 그러하였고 또한 그것이 세상 끝 날까지 역시 그러할 것이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잠 4:18)른다. SC 112.2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며 지력의 발달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보증을 붙잡을 수 있나니, 이것은 사람의 재능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되고 심령의 온갖 능력이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직접 접촉하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하므로 답답하던 모든 것이 그때에는 밝히 알려지겠고 또한 이해하기 곤란하던 것들이 그때에는 해석을 얻게 될 것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유한한 생각으로 혼란과 실패로만 보았던 그것이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調和)임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전 13:12) SC 112.3

13장 주 안에서 기뻐함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선하심과 자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참된 품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드럽고 인자하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드러내어 보일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요 17:18)다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요 17:23)을 알게 하옵소서 하셨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그리스도의 편지니",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고후 3:3, 2)고 하였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를 통하여 한 편지를 세상에 보내신다. 그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면 그는 그대들을 한 편지로 그대가 사는 가정과 동리와 거리로 보내신다. 그대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께서 당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에 호소하신다. 설혹 저들이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고 또는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였을지라도, 또는 저들이 하나님의 업적 가운데서 그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대들이 예수의 참된 대표자일 것만 같으면 저희가 그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얼마만큼 이해하게 되어 그를 사랑하고 섬기게 될는지도 모른다. SC 115.1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는 길에 등불을 비추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 저들은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비춘 빛을 세상에 반사해야 할 것이다. 저희의 생애와 품성은 다른 사람들이 저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봉사에 대하여 옳은 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SC 115.2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할진대 우리는 그의 봉사가 재미있는 것임을 사실 그대로 나타내게 될 것이다. 우울함과 슬픈 것만을 생각하고 원망과 불평만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생애를 잘못 표시하는 것이 된다. 저들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행복되기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감상을 주나니 저들은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 그릇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다. SC 116.1

사단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신과 낙망 가운데 빠지게 할 수 있을 때에 크게 기뻐한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의 갈망과 능력을 의심하는 것을 보기를 기뻐한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주께서 당신의 섭리로써 우리를 해롭게 하신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주께서 긍휼과 동정이 없으신 것처럼 나타내는 것은 사단의 하는 일이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사실을 그릇되게 말한다. 그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관념으로 차게 하나니 우리들은 우리 천부께 대한 사실을 깊이 생각하는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사단의 오전(誤傳)하는 말에 기울인다. 하나님을 신뢰치 아니함으로써 또는 그를 원망함으로써 그에게 불경하는 때가 너무도 많다. 사단은 언제나 신앙 생애가 우울한 생애가 되게 하려고 힘쓴다. 그가 신앙 생애가 고생스럽고 어려운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생애 가운데서 신앙에 대하여 이와같이 괴로운 것임을 드러낼 때에는 그는 그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기만을 찬동하는 것이 된다. SC 116.2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은 저희의 잘못과 실패와 실망에 대하여 자꾸 생각함으로 저희의 마음이 근심과 낙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 필자가 유럽에 있을 때에 이러한 처지에 있어서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진 한 자매가 나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서 보낸 일이 있었다. 내가 그의 편지를 읽는 날 밤에 난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 가운데 나는 한 동산에 있었고 그 동산의 주인인듯한 사람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나는 꽃을 따며 향기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에 내 옆에 서서 가던 그 자매는 그의 길을 방해하는 보기 싫은 찔레나무에 나의 주의를 이끌었다. 그 자매는 거기서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었다. 그는 안내자를 따라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찔레와 가시나무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탄식하여 말하기를 "아! 이런 아름다운 동산이 가시나무로 하여 면목이 손상되는 것은 가석한 일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그때에 그 안내자는 말하기를 "가시나무는 당신을 상하게 할뿐이니 그것은 상관하지 마시오. 그리고 장미와 백합화와 석죽을 따시오."라고 하였다. SC 116.3

그대들의 경험 가운데 어떤 명랑한 장면은 없었는가?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신의 감화에 따라 기쁨으로 뛰는 그러한 귀한 기회를 가져본 일은 없는가? 그대의 일생의 경험들을 회고할 때에 거기서 무슨 유쾌한 장면은 찾아볼 수 없는가?

하나님의 허락은 향기로운 꽃과 같이 그대들이 나아가는 길 좌우편에서 자라나지 않는가? 그대들은 그 허락들의 미(美)와 향기로써 그대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지 아니할 것인가? SC 117.1

찔레와 가시는 그대들을 상하게 하고 고립케 할 것 뿐이니 만일 그대가 이런 것들만을 꺾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면 그대는 그대 자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그대들의 주의에 있는 사람들까지 생명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되지 않는가? SC 117.2

과거 생애 가운데 모든 불유쾌한 추억들-과거의 불의와 실망-만을 모아 가지고 거기 대하여 이야기하고 거기 대하여 비탄하는 중에 마침내 낙담에 빠지게 되는 일은 현명한 일은 아니다. 낙담된 심령은 흑암으로 가득 차게 되고 또 하나님의 빛이 그 심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버리고 다른 사람의 길에 암영(暗影)을 던지는 것이다. SC 117.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신 마음에 생각할 명랑한 제목들에 대하여 감사하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복된 보증들을 모아 가지고 그것들을 늘 바라보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으시고 그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신 것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심으로 인류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알현실(謁見室)을 사람에게 보여 주시는 것과-타락한 인류가 죄로 인하여 빠진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사 다시 무한하신 하나님께로 연합하게 하시는 것과, 또 인류가 우리 구주에 대한 신앙을 시험하는 그 시험을 견디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의 보좌에 함께 앉기까지 높임을 받는 것-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제목들이다. SC 118.1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의 허락을 믿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그의 성신을 근심케 하는 것이다. 가령 한 모친이 자기 자녀들의 유익을 도모하고 안락을 주기 위하여 온 생애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 자녀들은 자기 모친이 저희에게 호의(好意)를 가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항상 그 모친에 대하여 불평만 한다고 하면 그 모친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 자녀들이 모친의 사랑을 의심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다. 어떤 부모든지 그 자녀들에게 이러한

대우를 받고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그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때에 우리의 천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사도는 기록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롬 8:32)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비록 말로는 표시하지 아니할지라도 저희의 행동으로써 "주께서 내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아마 주께서 다른 사람은 사랑하실는지 모르나 나는 사랑하시지 않으신다."고 말한다. SC 118.2

이렇게 하는 일은 모두 그대 자신의 심령을 해롭게 하는 것이니 대개 그대가 말하는 의심하는 말마다 사단의 유혹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또 의심하는 말은 그대에게 의심하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하며 봉사하는 천사들로 하여금 슬피 그대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사단이 그대들을 시험할 때에 그대들은 의심하고 비판하는 말은 한마디라도 말아야 한다. 만일 그대들이 사단의 유혹을 용납하는 문을 열어 놓을 것 같으면 그대의 마음은 불신과 반역적 의심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대들이 그대들의 느끼는 바를 기탄없이 말하여 버린다면 그대들이 말하는 의심마다, 그대 자신에게만 영향이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의 생애에도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하는 씨가 되어 그대들의 말의 감화를 소멸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비록 그대들 자신은 사단의 일시적 시험과 올무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는지 모르나 그대들의 감화를 받은 다른 사람들이 말한 그 불신에서 벗어날 수 없을는지 모른다. 그런즉 우리가 언제나 영적 힘과 생기를 주는 그러한 말만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긴요한가! SC 119.1

천사들은 그대들이 하늘에 계신 주께 대하여 세상 사람에게 어떠한 말을 하는지를 듣고 있는 것이다. 그대들의 담화는 천부 앞에서 그대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대들이 친구의 손을 잡고 인사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그대들의 입술에서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각이 그대들의 마음에서 생겨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그 친구의 생각을 예수에게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SC 119.2

누구나 다 시험이 있고 또 견디기 어려운 근심과 대항하기 어려운 유혹들이 있다. 그대들의 어려운 사정은 그대들과 같은 연약한 인간에게 말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기도로써 하나님께 내어 놓을 것이다. 언제든지 의심하고 낙담하는 말은 한마디라도 입밖에 내지 않는 주의(主義)를 세우라. 그대들은 희망을 주고 원기를 돋우는 말로써 다른 사람의 생애를 명랑하게 하고 그들의 노력에 힘을 더하여 주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SC 119.3

시험에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도 시험으로 몹시 괴로운 가운데서 자아(自我)와 더불어 또는 의 세력으로 더불어 싸우는 가운데 거의 기력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힘든 투쟁 중에 있는 자들을 낙담케 하지 말라. 그런 이들에게 저희의 길을 전진할만한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로 원기를 돋우어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빛이 그대들에게서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롬 14:7)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끼치는 감화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격려를 받으며 힘을 얻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낙담하게 되어 그리스도와 진리에서 떠나게 될 수도 있다. SC 120.1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다. 저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는 온정미와 쾌활성이 결핍하고 엄하고 가혹하고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고 한다. 모든 신앙상 경험이 이러한 우울한 견해(見害)로 말미암아 악평(惡評)을 받는 경우가 많다. SC 120.2

예수는 울기는 하였으나 웃은 일은 도무지 없다는 말을 흔히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참으로 슬픔에 처한 자이었으며 비통을 잘 아셨나니, 이는 그가 인류의 모든 우고(憂苦)를 위하여 당신의 마음을 여신 까닭이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극기의 생애였나니 비록 고통과 근심으로 그늘졌을지라도 그의 정신은 꺾이지 아니하셨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나 원망의 표정이 없고 도리어 항상 안정하고 침착한 표정을 띠셨다. 그의 마음은 생명샘이었고 그는 어디를 가시든지 안정과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 SC 120.3

우리 구주께서는 심히 진중(鎭重)하시고 매우 열정적이었으나 조금도 음울하거나 얼굴을 찌푸린 표정이 없으셨다. 구주를 모방하는 자들의 생애는 진실된 목적으로 차게 될 것이고 저들은 개인적 책임을 깊이 느끼게 될 것이다. 경박함이 없어지고 난잡한 환락(歡樂)과 비열한 농담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는 강과 같은 평강을 준다. 이 종교는 기쁨의 빛을 꺼버리지도 아니하고 유쾌함을 억제하거나 명랑하고 웃는

얼굴을 흐리게 하지도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요 섬기려 하심이니, 그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할 때에 우리는 그의 모본을 따르게 될 것이다. SC 120.4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불친절하고 온당치 않은 행위만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것처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깊이 생각할 것 같으면 그와 동일한 정신이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로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불완전함을 보지 않을 수 없을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한다. 겸손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정신을 길러야 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참으며 동정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인색한 이기심을 없이하고 우리로 하여금 관대하고 너그럽게 할 것이다. SC 121.1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시 37:3)라고 하였다. "여호와를 의뢰하라" 날마다 그날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날의 근심과 난문제들이 있나니 우리가 서로 만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사정과 시험에 대하여 얼마나 입빠르게 말하는지 모른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쓸데없는 걱정을 사서하고 너무나 많은 공포심을 가지며 또 너무나 무거운 근심되는 말을 함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시고 급할 때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구주가 계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SC 121.2

어떤 이는 항상 염려하고 공연한 근심을 사서 한다. 저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들로 둘러싸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로 주시는 은사를 누리건만 저들은 이러한 현재의 축복을 모르고 지낸다. 저들의 마음은 항상 앞으로 오리라고 염려하는 어떤 불유쾌한 것에 대하여 항상 생각한다. 또는 실지로 존재하고 있으나 그다지 크지 않은 어떤 어려운 일이 저희의 눈을 가리워서 마땅히 감사해야 할 여러 가지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한다. 저희가 당하는 곤란이 저희 유일한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대신에 도리어 그것이 불안과 불평의 생각을 일으키므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 SC 121.3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아도 좋은가? 우리는 어찌하여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치 않는가? 예수는 우리의 친구이시며 온 하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매일의 생애의 번민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번민케 하거나 얼굴을 찌푸리게 하지 말게 하라.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성가신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다만 번민케 하고 피로(疲勞)케 할뿐이니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견디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걱정은 버려야 한다. SC 122.1

그대들은 그대들의 업무에 있어서 번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대의 앞길이 점점 암담하여져서 손실을 당할 염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말라. 그대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침착하고 기쁜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이 사건들을 신중히 처리할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함으로 손해와 재난(災難)을 면하게 하라.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하여 그대로서 할 최선을 다하라. 예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허락하셨으나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없이도 될 것은 아니다. 그대들이 그대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대들의 할 수 있는 것을 다한 다음에는 그 결과가 좋든지 나쁘든지 달게 받아들이라. SC 122.2

당신의 백성이 근심에 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신다. 그는 "너의 앞길에는 위험이 없으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그는 시련과 위험이 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대한 처리를 솔직하게 하신다. 그는 당신의 백성을 죄악 세상에서 떠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고 저들에게 절대 실족함이 없는 피난처를 가리켜 주신다. 당신의 제자들을 위한 당신의 기도는 아버지께서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요 17:15)라는 것이었다. 그는 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고 하셨다. SC 122.3

그리스도께서 산상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귀중한 교훈을 주셨다. 이 교훈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격려가 되게 하기 위함이니 그것은 우리 시대에 있어서도 많은 교훈과 위안이 되는 것이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아무 걱정 없이 찬송의 노래를 부르는 공중의 나는 새를 보라 저희는 "심지도 않"(마 6:26)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크신

아버지께서는 저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구주께서 물으시기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마 6:26)라고 하셨다. 사람과 짐승의 크신 공급자께서는 그 손을 펴사 당신의 모든 피조물에게 공급하여 주신다. 공중의 나는 새도 그의 돌보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물론 그는 식물을 새의 주둥이에 떨어뜨리지는 않으시나 저희의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주신다. 새들은 그가 저희를 위하여 흩어 놓은 곡식을 주워 먹어야 한다. 또 새들은 저희의 새둥우리를 지을 재료를 마련하여야 하고 저희 새끼를 먹여야 한다. 저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일하러 나아가나니 이는 "천부께서 기르"(마 6:26)심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마 6:26), 즉 지능을 가지고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대들은 공중의 새보다 더욱 가치가 있지 아니하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생명의 보존하시는 이시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자께서 우리가 그를 의지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지 아니할 것인가? SC 123.1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무성하게 자라서 천부께서 부여하신 아담한 미(美)를 빛내는 들의 꽃들은 인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그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마 6:28)고 말씀하셨다. 이 들의 꽃들의 미와 아담함은 솔로몬의 영화보다도 훨씬 뛰어난다. 예술적 기술을 다하여 만든 가장 화려한 성장(盛裝)이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꽃들의 자연적인 우아(優雅)와 눈부신 미(美)와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마 6:30)라고 하셨다. 신령한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에 없어지는 단순한 꽃에게도 아름다운 여러 가지 색채로 단장하게 하셨거든 하물며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을 위하여서야 얼마나 더욱 크게 돌보실 것인가? 이 그리스도의 교훈은 믿음이 없는 자들의 염려하는 생각과 번민과 의심을 책하는 견책이 되는 것이다. SC 123.2

주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행복되고 화평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요 15:11)고 하셨다. SC 124.1

의무의 상도(常道)에서 벗어나서 이기적 동기로써 구하는 행복은 편벽된 것이요 변역하기 쉬운 것이요 일시적인 것이니, 그것이 지나가 버리면 심령은 쓸쓸함과 섭섭함으로 차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기쁨과 만족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안전한 길로 걸어가라고 방임되지 아니하였다. 또 그리스도인은 공연한 후회와 실망 가운데 버린바 되지도 아니하였다. 만일 우리가 현세의 낙(樂)을 가지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는 내세를 바라봄으로 오히려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SC 124.2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라도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그의 사랑의 빛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받는 영구적 위안을 누릴 수도 있다. 우리 생애의 매 발걸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고 복된 평화의 본향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우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전보다 더욱 굳은 확신을 가지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삼상 7:12)으니 그는 또한 끝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멸망시키시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를 바라보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인애와 자비-눈물을 씻어 주신 것-을 언제나 새롭게 기억하자. 그리함으로 우리의 나그네 생애의 여생(餘生)을 통하여 우리 앞에 있을 모든 난관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굳세게 하자. SC 125.1

우리는 장차 오는 투쟁에 있어서 새로운 난국(難局)을 내다보지 않을 수는 없으나 장차 있을 일도 이미 지난 일과 같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신 33:25). 시험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도록 부여된 힘의 한도를 넘지 않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그 시험을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당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착수하자. SC 1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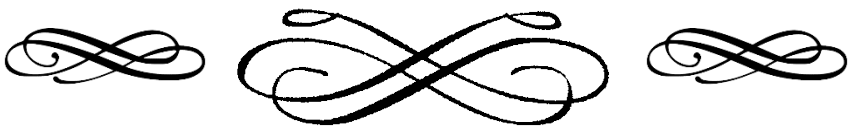
그리하면 머지않아서 천국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들이기 위하여 열리게 될 것이고 영광의 왕의 입술에서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마 25:34)는 큰 음악 소리와 같은 축복이 저희 귀에 들릴 것이다. SC 125.3

그 때에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께서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로 맞아들임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서 저희가 사귈 동무들은 이 땅의 비열한 자, 거짓말하는 자, 우상숭배자, 더러운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닐 것이다. 저희는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완전한 품성을 형성한 자들로 더불어 교제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저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죄의 습관, 모든 불완전한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거되고 태양의 광선보다 훨씬 뛰어난 아름답고 광채나는 당신의 영광을 저희에게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품성의 완전하심, 즉 도덕적 미(美)가 저들을 통하여 빛날 것이니 그 가치는 이 세상의 외관상 화려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다. 저들은 하나님이 흰 보좌 앞에 허물이 없는 자로 천사의 권위와 특권을 누릴 것이다. SC 126.1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유업을 생각할 때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26). 비록 그는 가난할지라도 그 자신에게 세상이 도무지 줄 수 없는 부요와 위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 정결케 되고 자기의 온갖 고상한 능력을 하나님께로 바친 그 사람은 지극히 가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나니 이 기쁨은 거룩한 승리의 노래로 표시되는 기쁨이다. SC 126.2

끝을 기대하면서



`